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08. **9** Vol. 201

부록 부산문화회관 9월 공연캘린더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기념 및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연주회



2008 제 1 회

# 부산국제민족음악축제

The 1st Busan International Ethnic Music Festival



팡 가 봉  
(중국광파민족악단 수석지휘자)



박출룡 찬드  
(몽골국립민속관현악단 상임지휘자)



박 호 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첫째마당 9월 23일(화) 중국광파민족악단  
둘째마당 9월 24일(수) 몽골국립민속관현악단  
셋째마당 9월 25일(목)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주 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 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입장권 균일 5,000원  
※ 일반 단체 30명 이상 1,000원 할인  
※ 청소년 단체 50명 이상 2,000원 할인

2008. 9. 23(화) ~ 9. 25(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ticketlink www.ticketlink.co.kr 콜센터 1588-7890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051)607-6070 www.bsculture.busan.kr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607-6110 www.bsgugag.com

북구의 정서를 함축하는 청명한 피아니즘, 스웨덴 출신의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

# Peter Jablonski Piano Recital

## 피터 야블론스키 피아노독주회

블라드미르 아쉬케나지, 정명훈이 선택한 스웨덴의 영웅!  
20대의 무서운 신예에서 30대의 젊은 거장으로 거듭난 피터야블론스키!

피아노의 귀공자라는 수식어를 달고 20대의 무서운 신예로 등장했던  
피터 야블론스키가 30대의 패기와 열정을 지닌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로  
거듭나 더욱 성숙한 음악성으로 9년 만에 부산을 찾습니다.

타고난 리듬 감각과 강하면서도 탄력있는 타건, 섬세하고 농도 짙은 감정표현으로  
세계정상급 피아니스트로 우뚝 선 피터 야블론스키가 연주하는  
그리그와 쇼팽 음악의 진수를 이 가을에 함께하시길...

### Program

Haydn Sonata in D major  
Grieg Piano Sonata in E minor Op.7  
Chopin Mazurka C sharp op.24/II  
Chopin Mazurka a minor op.17/IV  
Chopin Sonata no.2 in B-flat minor op.35  
Chopin Scherzo No.1

**2008년 10월 2일 (목) 오후 8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7-1536

입장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4만원 / B석 3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10%할인됩니다.)

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 인터파크 1544-1555

# 2009

## 상반기 부산문화회관 대관안내



### 대 상

• 극장(대·중·소), 전시장(대·중)



### 대관내용

→ 대관기간 2009년 1월 ~ 6월 (6개월간)

※ 무대정비로 인한 대관 불가기간

┌ 대극장 : 1월 2일(금) ~ 1월 6일(화) (5일간)

└ 중극장 : 1월 2일(금) ~ 1월 6일(화) (5일간)

└ 소극장 : 1월 2일(금) ~ 1월 6일(화) (5일간)

→ 접수기간 2008년 9월 17일(수) ~ 9월 30일(화) (10일간)

접수시간 : 월 ~ 금요일 09:00-18:00 (토, 일요일 제외)

### → 대관심의 및 결정 통보

접수 마지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용허가 통보



### 기본방향

- 순수문화예술 공연·전시 우선 → 대중 예술공연 제한적 허용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전시
- 종합예술공연 진흥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 창작 또는 유망신인 작품 발표 기회 제공
- 소규모 연주회는 소극장으로 대관안내, 대·중극장 편중지양



### 대관신청 및 허가 절차

• 상담(구두, 전화)→신청 및 접수(적정여부)→대관심의(일정조정)→통보



### 대관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기획의도, 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1부

※ 신청자료가 부실한 경우 및 대관료 미납 단체는 대관심의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납부

• 계약금(기본시설 사용료의 10%) : 사용허가 후 30일 이내 납부, 계약체결

• 잔 금 : 공연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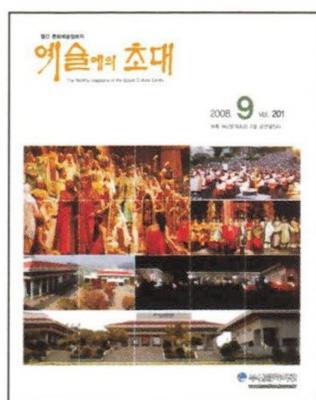
※ 기한내 사용료 미납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거 대관 취소시 납입된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의 10%는 시에 귀속됩니다.

▶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운영담당 ☎ 607-6051~6





커버스토리	08	개관 20주년 맞은 부산문화회관
반갑습니다	12	부산문화회관장 정우연
프리뷰	14	
문화가 화제	20	2008 부산비엔날레 '낭비(Expenditure)'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22	바다, 그 무궁한 개척의 처녀지 _ 김상훈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24	자연이 예술인 나라 캐나다 _ 공정배
황윤기의 월드뮤직여행	28	브에노스 아이레스의 걱정과 우울, 탱고 _ 황윤기
우리는 문화 가족	29	부산은행 '부은합창단'
생활속의 관화이야기	30	대중을 사로잡은 팝아트, 실크스크린 _ 채경혜
그 곳에 가면	32	복합문화공간 '문화골목'
프로그램 가이드	34	
나의 애청음반	47	르로이 앤더슨 '관혁악곡 모음' _ 이동신
새로 나온 책	48	
부산문화회관소식	49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50	
100자 토크	52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53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TEL. 625-8130 / FAX 607-6079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 (대연 4동 848-4)  
**발행인** 정우연                      **편집인** 박원철                      **편집장** 백경옥  
**발행일** 2008년 8월 25일  
**인쇄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표지설명**  
 1988년 9월 3일 개관 이래 부산문화예술의 본당으로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쳐온 부산문화회관이 개관 20주년을 맞는다. 개관 20주년을 맞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제작된 오페라 '아이디'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September 2008

#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전시실

■ 2008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미술은 지금이다' 전-대·중전시실  
9월 5일(금)~9월 19일(금)  
문의 :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888-6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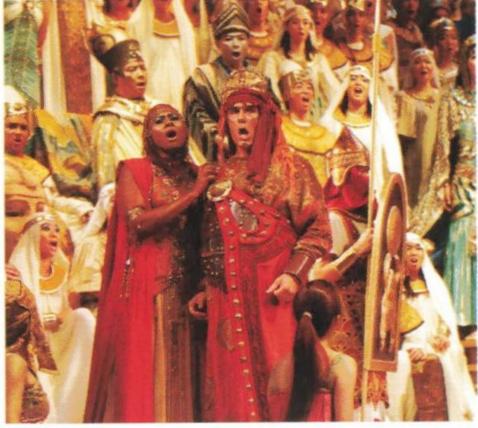
■ 한국예총 '6개 광역시 및  
제주도 미술작가 초대전' -대전시실  
9월 22일(월)~9월 28일(일)  
문의 : 부산미술협회(632-2400)

■ 2008 부산예술제 개최기념  
'부산미술의 새로운 시선전' -중전시실  
9월 22일(월)~9월 28일(일)  
문의 : 부산미술협회(632-2400)

■ 제 17회 부산한국화전-대전시실  
9월 29일(월)~10월 5일(일)  
문의 : 부산미술협회(632-2400)

## 국제회의장

■ 러시아합창의 거장  
마에스트로 V. 바쥬엘스키 초청세미나  
10월 6일(월) 오후 2:00  
· 참석대상 : 부산·울산·경남지역 음악대학 재학생  
및 합창음악에 관심있는 분  
· 주제 : 합창발성법 및 지휘법의 원리와 활용  
러시아 합창에서의 합창호흡법 등  
※ 초청연주회 : 10월 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참가비 : 무료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Sunday	Monday	Tuesday
	1	2
7 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19:30 15만원 · 13만원 · 10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 솔오페라단(1544-9373) 중   부산YMCA오케스트라 제 11회 정기연주회 17:00 초대/장진(010-2980-0115) 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클래식기타동아리 '여가울' 25주년 기념연주회 19:00 무료/박인호(010-2592-8309)	8 중   제 37회 독우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9 중   부산창작관현악공쿠르 음악회 및 부산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 음악회 19:30 1만원 · 5천원/백진현(999-5165, 011-503-9541)
14	15	16
21 대   2008 부산예술제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 중   소프라노 신영미 귀국 독창회 18:30 초대/클래식아트매니저(010-8368-2445)	22 중   한연회 초청 특별 연주회 19:30 균일 3만원/부산예술협의회, 예은예술기획(627-2572)	23 대   제 1회 부산국제민족음악축제-중국 광파민족 단 연주회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중   국제신문 한낮의 U:콘서트 11:00 균일 1만 5천원/국제신문(500-5222) 예술기획(0505-700-9798) 2008 대학 합창페스티벌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합창단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
28 대   2008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탱고대회 준결승전 15:00 무료/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500-2872) 중   제 77회 부산, 영남 무용예술제 09:00 정성철(011-284-8880)	29 대   2008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탱고대회 결승전 16:00 무료/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500-2872) 중   루퍼스 최 피아노 리사이틀 20:00 3만원 ·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30 중   제 16회 임병원 바이올린 독주회-메시앙 탄 100주년 기념 '프렌치 로망스' 19:30 2만원 · 1만원 임병원(010-8533-4917, 경성대(620-4918)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p>3</p> <p>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19:30 15만원 · 13만원 · 10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 솔오페라단(1544-9373)</p> <p>중   청소년 협연의 밤 19:30 무료/선기획(758-6410)</p>	<p>4</p> <p>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19:30 15만원 · 13만원 · 10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 솔오페라단(1544-9373)</p> <p>중   제 10회 고태국 성악콩쿠르 예선 14:00 부산일보사(461-4437)</p>	<p>5</p> <p>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19:30 15만원 · 13만원 · 10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 솔오페라단(1544-9373)</p> <p>중   제 10회 고태국 성악콩쿠르 예선 14:00 부산일보사(461-4437)</p>	<p>6</p> <p>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19:30 15만원 · 13만원 · 10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 솔오페라단(1544-9373)</p> <p>중   제 10회 고태국 성악콩쿠르 예선 14:00 부산일보사(461-4437)</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p>10</p> <p>대   김명자의 춤 19:30 2만원 · 1만원 김정경(011-9554-6120), 이정숙(019-542-9770)</p> <p>중   제 3회 효산가야금 연주단 정기연주회 19:30 2만원 · 1만원/김혜련(017-551-4540)</p>	<p>11</p> <p>대   2008 부산음악협회 부산 피아노 그랜드 페스티 벌 '마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협주곡의 밤' 19:00 2만원 · 1만원/부산음악협회(634-1295)</p> <p>중   양상블 디 마레 창단연주회 19:30 2만원 · 1만원/양상블 디 마레(442-1941)</p>	<p>12</p> <p>대   2008 부산음악협회 부산 피아노 그랜드 페스티 벌 '그랜드 피아노 페스티벌' 19:00 2만원 · 1만원/부산음악협회(634-1295)</p>	<p>13</p>
<p>17</p>	<p>18</p> <p>대   제 10회 고태국 성악콩쿠르 본선 13:00 부산일보사(461-4437)</p> <p>중   고신대학교 예술대학 기악과 30주년 기념 피아노 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19</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64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p> <p>중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창단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노은주(016-565-9780)</p>	<p>20</p> <p>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및 부산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창단 35주년 기념 제 123회 정기연주회 '즐거움 합창 이야기' -로봇 태권 V가 캔디를 만났을 때' 17:00 균일 2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p> <p>중   김동욱 바이올린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부산아트메니지먼트(747-1536)</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향 목관5중주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p>24</p> <p>대   제 1회 부산국제민족음악축제-몽골국립민속관 현악단 연주회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p> <p>중   작곡동인 잉태 '제 7회 세 남자의 합창이야기' 19:30 1만2천원 · 7천원/최석태(019-623-1547)</p>	<p>25</p> <p>대   제 1회 부산국제민족음악축제-부산시립국악관 현악단 연주회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p> <p>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30회 정기연주회 '러시아의 근대 음악'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4)</p>	<p>26</p>	<p>27</p> <p>대   2008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탱고대회 예선전 14:00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500-2872)</p> <p>중   2008 제 31회 부산무용예술제 16:00 1만원 ·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예술단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p>101</p>	<p>102</p> <p>대   피터 아블론스키 피아노 독주회 20:00 7만원 · S석 5만원 · A석 4만원 · B석 3만원 부산아트메니지먼트(747-1536)</p> <p>중   이명진 첼로 독주회 19:30 2만원 ·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103</p> <p>중   2008 대학 합창페스티벌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합창단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p>	<p>104</p> <p>대   뮤지컬 '내마음의 풍금' 16:00, 19:00 7만7천원 · 6만6천원 · 5만5천원 · 4만4천원 이인복(017-401-5944)</p> <p>중   2008 대학 합창페스티벌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합창단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p>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부산문화회관은 부산문화의 산 역사

부산문화예술인들의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부산문화회관은 부산문화의 산 역사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부산시민들의 친근한 문화 쉼터로, 부산시립예술단의 보금자리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 나아가 세계적인 문화도시 부산으로 나아가는 예술의 본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산 시민의 한사람으로 개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부산시립예술단장 안준태

## 예술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지역문화예술의 요람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문화적 역량은 국가나 지역의 또 다른 평가기준이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입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의 중심에서 부산문화회관이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복지와 문화예술교육에 더 한층 기여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시민 누구나 즐겨 찾는 친숙한 문화공간으로서, 감동의 예술무대 창출과 각종 문화예술정보 제공을 통해 예술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지역문화예술의 요람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부산문화회관의 개관 2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창작과 발표의 공간으로,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는 아름다움과 자긍심을 심어줄 문화공간으로 언제나 부산시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김동호

## 부산의 예술문화인들과 함께 성장한 부산문화회관

대중의 의식수준은 그 사회의 문화척도입니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과 참여로 발전하는 사회는 문화적인 척도 또한 높을 것입니다. 20여 년 전 한 그루 묘목으로 자리했던 부산문화회관이 이제 부산예술문화의 들보로서 실팩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보다 배타적이고 고립적이며 현란한 이미지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즈음 삶의 진정성을 펼치고자 노력하는 부산 예술문화인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부산문화회관의 개관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肉에서 精을 걸러내고 無에서 有를 이룩하며 예술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창작인들의 열정에 동참하며 가일층 디딤돌의 역할을 당부드리며 개관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 회장 최상운

## 삶을 사치스럽게 한 20년

문화를 향유하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은 없다. 아픈 사람도 없다. 죽지도 않는다. 문화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없어도 그만인 것이 문화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체는 분명하다. 물리적이 아니라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낮고 무디게 살도록 하지는 않고, 때로는 높고 고상하게 살게 한다. 성장하고 나선 숙녀의 반지처럼 아름답고 사치스럽다. 그냥 사는 삶에 때로는 보석이 된다. 문화는 그래서 필요하다.

초창기 CI 작업에 가담했고, 오페라 공연에도 힘을 보탰던 사람으로서, 순식간에 흘러간 20년에 놀란다. 그 사이 정신적 사치가 우리 삶에 어떤 가치를 갖는가를 부산문화회관은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제 사벨보다 향기로운 부산이 되게 하는 것이 부산문화회관의 과제가 아닐까.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 집행위원장 강남주

## 성숙된 성인의 모습으로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부산문화회관의 개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현대식 공연장의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부산문화회관은 서울 예술의전당과 더불어 20년이라는 세월동안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람으로 본다면 20년이라는 세월은 세상에 나와 왕성한 활동을 위한 성장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성숙된 성인의 모습으로 부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전국문예회관연합회 회장, 서울 예술의전당 사장 신흥순

## 부산·경남 지역의 문화중심지로 더욱 발전

문화는 옛것을 보존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진화해 가는 우리 인간 삶의 거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문화는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민들의 거울이 될 문화의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수한 공연 보급과 문화 창조 활동을 통하여 부산 뿐만이 아닌 한국의 문화를 이끌어 가는 주축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산시민들의 안락한 문화 공간으로서, 부산·경남 지역의 문화 중심지로서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박인건

##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와 예술의 요람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와 예술의 요람, 부산문화회관의 개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곳은 부산시민들에게 행복과 위안을 드리는 예술과 감동의 푸른 숲입니다.

저와 연주자들은 연주회가 끝나면 무대에서 늘 청중들의 박수를 받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주신 부산문화회관 모든 관계자분들의 열정과 수고에 마음으로부터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다가올 20년도 시민들의 가슴속에 가슴 따뜻한 감동과 몽클한 여운을 남기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유라시안 필하모닉 음악감독, 경기필하모닉 예술감독 금난새

## 문화적 잠재력을 지닌 부산 문화의 중심

부산문화회관 무대에 설 때마다 항상 부산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습니다. 서울 못지않은 문화적 잠재력을 지닌 부산의 문화 예술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성년을 맞은 부산문화회관이 이를 선도해 나가길 바랍니다.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정명훈

## 부산문화의 중심,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멋진 공연장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부산문화회관에서의 추억은 남다릅니다. 명예 부산시민으로 부산 문화회관이 부산 문화의 중심,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멋진 공연장으로 거듭나기를 언제나 기원하겠습니다.

부산문화회관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광안대교와 열정 넘치는 부산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항상 반겨 주시는 부산시민여러분, 12월에 만나요.

소프라노 조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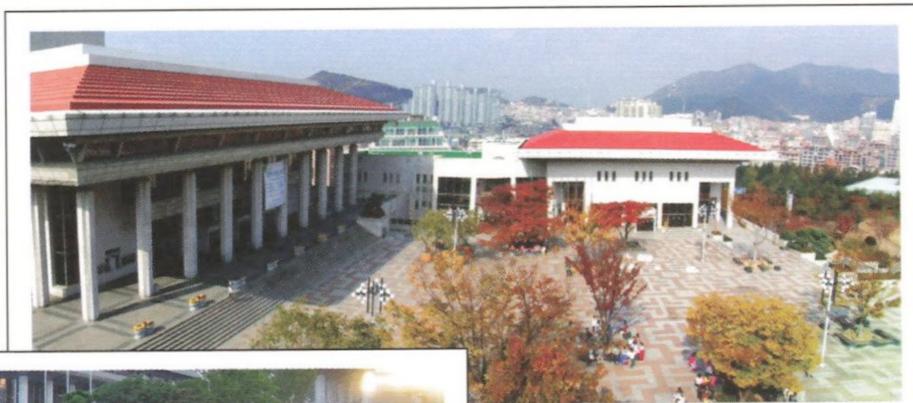
## 부산 음악계의 랜드마크

부산문화회관 개관 20년, 부산 신포니에타 리더로서 그 간 많은 음악회를 부산문화회관에서 가지면서 지켜본 세월이 벌써 이렇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다. 20년이면 성인의 나이이다. 마치 다 큰 자식을 보는 듯한 대견스러움이다. 부산문화회관은 유엔공원을 앞에 두고 멀리 광안대교를 바라보는 전망이 언제나 좋다. 그동안 부산문화회관은 합창 올림픽 등 수 많은 행사를 주도해 왔다.

이제 부산문화회관에 바라는 것은 국내외의 유명 연주단체들을 더욱 많이 유치하여 지역에 수도권 못지않은 문화적 혜택을 주어야 하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야 한다.

성인이 된 부산문화회관이 빈의 오페라 하우스나 게반트 하우스처럼 부산 음악계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부산신포니에타 리더, 부산대학교 교수 김영희



# 부산문화회관이 걸어온 20년



1988년 9월 3일 개관된 부산문화회관이 2008년 9월 3일 개관 20년을 맞는다.

지난 20년간 부산은 물론 세계적인 예술인, 예술단체가 부산문화회관에서 창작열정을 불태우며 감동과 열정의 무대를 선보였다. 개관 20년을 맞는 올해는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특별 제작한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를 비롯하여 '브로드웨이 42번가',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다이나믹 페스티벌', 창작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 등 다양한 기획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을 대표하는 현대적인 공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1년 조선시대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당곡공원을 부지로 정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었다. 1982년 설계 공모를 실시, 임장열 건축사의 작품이 당선되어 1983년 10월 기공식이 거행되었고, 공사 5년만인 1988년 9월 3일 1,700석 규모의 대극장을 1차 개관하게 되었다.

건물은 우리의 전통 가옥구조를 설계의 기본으로 하여 대극장과 중극장, 소극장을 배치했다. 대극장 완공 후 3년 뒤인 1991년 11월 11일 249석 규모의 소극장을 개관했고 1993년 4월 15일 중극장과 중전시설을 개관하면서 10년간의 대역사가 마무리되었다. 1993년 4월 15일 전관 개관을 기념, 3주간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등 부산시립예술단과 전국의 유명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전관개관 기념 예술제를 성대하게 개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부산문화회관은 개관 당시 새로운 문화를 육성하는 창조의 공간으로, 수준 높은 작품을 제공하는 발표의 장으로, 또 예술과 관객의 교류를 촉진하는 만남의 공간이 되고자한 개관 의미

를 깊이 새기며 그동안 부산 문화예술의 본당으로 그 역할을 다해왔다. 현재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예술단이 상주하며 부산문화 활성화를 위해 땀 흘리고 있다.

지난 20년간 부산의 문화 예술인은 물론 세계적인 예술단체들이 부산문화회관 무대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문화도시 부산의 초석을 다졌다. 그동안 부산문화회관을 찾은 단체로는 볼쇼이발레단, 모스크바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레닌그라드 심포니오케스트라,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NHK 심포니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첼로의 거장 로스트로포비치, 미샤 마이스키 등 세계적인 연주자, 발레단이 부산문화회관 무대에서 부산시민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부산문화회관은 이제 20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20년을 준비하고 있다. 원활한 공연을 위해 공연시설을 점검하고 있지만 노후화로 인한 제약이 많아 국내 최고의 공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2005년에는 대극장 객석의 노후한 의자를 교체했고 2006년에는 중극장 객석 의자를 모두 교체했다. 올해는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예술인들에게 보다 안락한 공연시설을 제공하게 위해 지난 8월 대극장 분장실을 한국적인 이미지에 현대적인 감성을 담은 안락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했고 소극장 의자 교체 작업도 마무리 했다.

지금은 보다 현대적인 공연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리모델링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고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확보와 실시 설계를 거쳐 본격적인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최고의 공연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진다

# 개관 20주년 맞은 부산문화회관 정우연 관장



부산시민들의 문화 휴식공간으로 사랑받아온 부산문화회관이 오는 9월 3일 개관 20주년을 맞는다.

부산문화회관 정우연관장은 지난 20년 동안 부산문화회관 무대를 빛낸 수많은 예술인들의 땀과 열정이 배어있는 부산문화회관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여느 때보다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7월 부산문화회관 제 14대 관장으로 부임한 그는 20주년 기념사업들을 계획 단계부터 진두지휘해왔다. 부임 후 매년 2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했던 기획공연 예산을 10억으로 증액했고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는데 많은 열정을 쏟아왔다.

“지금은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돌아오는 20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부산문화회관이 예술인들에게 공연 장소를 제공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변화하는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최상의 공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개관 20주년을 부산문화회관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다가올 20년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부임 당시 자신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올해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들을 준비, 부산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대부분의 대작들이 1~2회 공연하고 막을 내리는 것이 안타까웠던 정우연 관장은 지난 3월 개관 20주년을 기념한 기획공연 ‘브로드웨이 42번가’를 13회에 걸쳐 장기 공연했다. 그 외 지난 5월 씨네파크에서 가진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다이나믹 페스티벌’, 7월 창작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 8월 국립발레단 초청 ‘지젤’을 선보였고 9월 3일 개관 기념일에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웅장한 무대와 서정적인 음악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를 솔오페라단과 공동 제작해 막을 올린다. 12월에는 부산명예시민인 조수미 초청 독창회와 새해를 맞는 벽찬 감동을 함께 나누기 위한 제야음악회로 개관 기념 기획공연을 마무리 한다.

부산문화회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문화’를 생소하고 어렵게 느꼈다는 정우연 관장은 부산문화회관장으로 재임하면서 문화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는 부산문화회관장으로 부임이후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무대 뒤에서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을 매일 지켜보며 독려했다.

현재 부산문화회관의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은 ‘리모델링 사



업’이다. 지난해 ‘미스 사이공’의 부산공연이 무산된 이후 부산은 한순간 제대로 된 공연장 하나 없는 문화의 불모지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지난 8월 대극장 분장실은 이미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한 상태이며 중극장 음향장비 구입과 소극장 객석의자 교체 작업 등도 공연 비수기인 8월에 작업을 완료했다.

“현재 대극장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년 말경 리모델링 용역결과가 나올 계획입니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부산문화회관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 과제에는 공연장 시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무대 높이와 무대 폭, 무대조명·음향 시스템, 로비 등 공연장 전반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부산문화회관에 야외 카페테리아와 음악분수대를 설치하여 쾌적한 문화예술 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 부산문화회관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우연 관장은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시민들의 편안한 문화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산문화회관 직원들과 예술단원들에게 항상 초심을 잃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민의 문화 공간입니다. 최고의 공연장으로 부산의 문화적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9월 3일 부산 오페라사에 한 획을 그을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연습장, 리모델링 작업을 마친 대극장 분장실 등을 바쁘게 오가며 2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정우연 관장.

지난 1년간 부산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과 소외 지역을 찾아가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부산시청 로비콘서트 등에 보여준 시민들의 열정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정우연 관장은 부산시민과 함께 맞는 2008년 특별한 가을이 기다려진다.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부산문화회관 솔 오페라단 공동제작

# 베르디 오페라 **AIDA**

- 9월 3일-7일 수-일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아름다운 아리아와 합창의 선율, 거대한 스케일로 오페라 애호가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오페라 '아이다' 부산 초연무대가 9월 3일 부산문화회관에서 막이 오른다.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부산문화회관과 솔오페라단이 공동 제작한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는 장대한 규모와 화려한 출연진으로 제작 단계에서부터 많은 화제를 모은 대작이다.

이번 무대는 세계 3대 오페라극장인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에서 많은 연출을 하고 현재 이탈리아 나르니극장의 음악감독으로 있는 파올로 바이오코(Paolo Baiocco)가 예술고문으로 참여하고 이탈리아에서 뛰어난 연출가로 활동하며 현재 서울 시립대학교 교수로 초빙되어 있는 안토니오 데 루치아(Carlo Antonio De Lucia)가 연출을 맡는다.

또 유럽과 국내를 대표하는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개관 20주년 기념 오페라 '아이다'를 위해 부산을 찾는다.

세계최대의 야외오페라극장 이탈리아 베로나의 'Arena' 극장에서 7년간 주역가수로 활약하며 약 400여 회 이상 오페라 '아이다'를 출연한 세기의 드라마틱 테너 피에로 줄리아치(Piero Giuliacci), 비엔나 국립극장 주역가수이며 '아이다'로 유럽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록산나 브리반(Roxana Briban),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해 부산음악애호가들과도 친숙한 러시아 로스토프 온 돈 국립극장 주역가수 이리나 크리쿠노바(Irina Krikunova), 로마극장 주역가수로 지난 2007년 서울에서 공연된 '아이다'에 출연해 그 가창력을 인정받은 카티아 리팅(Katya Lytting), 유럽전역의 주요극장에서 많은 활

동을 하고 있는 라리사 데미도바(Larissa Demidova), 헝가리 출신으로 비엔나 국립극장 주역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안드라스 팔레르디(Andras Pallerdi),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 2008년 성악가들의 꿈의 극장인 라스칼라 극장에 '맥베드' 주역가수로 데뷔한 테너 이정원과 국내 정상급 베이스 김요한, 안균형, 부산 정상급 성악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소프라노 배수진, 테너 김지호, 바리톤 박대용, 김종화 등 국내 무대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초호화 캐스팅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합창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총 출연진 200여명이 동시에 무대에 오르고 현란한 무용, 이집트의 찬란했던 문화를 고증한 화려한 의상과 웅장한 무대세트 등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오페라 '아이다'는 작곡가 베르디가 1869년 11월 수에즈 운하 개통을 기념, 당시 이집트왕이 카이로에 건립한 오페라 극장 개장식을 위하여 10만 프랑의 사례금을 받고 작곡했다. 유

럽에서는 1872년 2월 8일 작곡자 자신의 지휘로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되었고 한국에서는 1965년 11월 국립오페라단(정재동 지휘)에 의해 국립극장에서 초연되었다.

고대 이집트가 배경인 오페라 '아이다'는 이집트의 무장 라다메스와 포로인 에티오피아의 공주 아이다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4막 7장의 작품으로 장중하고 화려한 음악과 호화롭고 장대한 무대장치 등 오페라 중에서도 대표적인 오페라로 꼽히는 대작이다. 이 오페라 중 라다메스가 노래하는 '청순한 아이다', 아이다가 노래하는 '이기고 돌아오라', 제2막 제2장의 '개선행진곡' 등은 서정미 넘치는 명곡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창단 이후 오페라 춘희, 라보엠, 그리고 수차레의 오페라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가진 솔오페라단은 지난해 서울시오페라단과 공동 제작한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와 올해 3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 콘서트 오페라 '카르멘'으로 극찬을 받은 바 있다.

### [제 1막]

무대는 멤피스에 있는 이집트 궁전.  
람피스가 라다메스에게 에티오피아가 이집트를 위협한다고 알려준다.  
전쟁의 대장으로 라다메스가 선택되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보상으로 공주의 노예로 잡혀 있는 에티오피아의 공주 아이다와의 결혼을 생각한다.  
행진곡이 울리고 군중들은 이기고 돌아오라고 외친다. 아이다도 그들을 따라 이기고 돌아오라고 애원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다메스와 아버지의 싸움으로 갈등하며 신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간청한다. 사원에서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원하는 예식이 계속된다.

### [제 2막]

라다메스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궁중에서는 모두들 그를 기다린다. 암네리스는 아이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라다메스의 승리 소식에 들떠 있는 아이다에게 라다메스가 전사했다고 전한다. 아이다가 라다메스를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알아챈 암네리스는 승리의 사실을 말해주고, 아이다는 안도한다.  
드디어 전투에서 승리한 라다메스가 유명한 개선행진곡과 함께 당당히 들어온다. 라다메스는 왕에게 포로의 사면을 청한다. 왕은 그의 청을 승낙하지만 아이다의 아버지 아모나스로를 억류하고, 암네리스와 결혼하라 명한다.

### [제 3막]

결혼 전날밤 암네리스는 신전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아이다의 아버지이자 에티오피아의 왕인 아모나스로는 그의 딸 아이다에게 이집트의 군사 정보를 라다메스를 통해 염탐하도록 시킨다. 결국 거부하다가 아이다는 아버지의 청을 들어주기로 하고, 기밀을 알아내려 하면서 라다메스에게 에티오피아로 함께 도망치자고 한다.  
조국과 연인 사이에서 방황하던 라다메스는 기밀을 누설하고, 그를 엿듣고 있던 암네리스는 병사를 부른다. 결국 라다메스는 기밀을 누설한 죄로 잡히고 아모나스로 역시 추격 받다가 이집트군에게 살해당한다.

### [제 4막]

암네리스는 아이다를 단념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라다메스는 거절하고 신전의 돌무덤에 산채로 묻히는 사형판결을 받는다.  
돌무덤 안에 라다메스가 갇히고 아이다는 그보다 먼저 돌무덤 속에 숨어 들어가 있다. 아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라다메스의 팔에서 영원히 잠든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1회 정기연주회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생태음악회Ⅲ  
 상생 2008

- 9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이명일



엄애리

아름다운 국악선율로 자연의 소중함을 전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생태음악회Ⅲ-상생 2008'이 9월 9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세 번째 마련되는 '상생 2008'은 오늘날 인류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환경생태를 주제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상생의 메시지를 아름답고 서정적인 창작관현악으로 전해준다. 특히 이번에 연주되는 원일 곡 창작관현악 '나비·꿈', 정동희 곡 창작관현악 '월광', 이준호 곡 노래와 창작관현악 '대수풀 노래'는 부산에서는 처음 초연되는 곡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담은 창작국악곡들이다.

첫 무대를 여는 창작관현악 '나비·꿈'은 장자의 '호접몽'에 매료된 원일이 같은 경험을 한 후 구상한 곡이다. 지난해 '상생 2007' 무대를 통해 부산에서 첫 선을 보인 이준호 곡 가야금을 위한 창작관현악 '바람·강'은 우리가곡과 재즈적인 요소를 혼합한 색다른 음색의 곡으로, 주제선율과 멜로디를 주고 받는 형식과 화성을 이용한 빠른 테크닉이 마치 을숙도의 시원한 강바람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25현 가야금 협연을 맡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이명일은 부산대학교 국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가야금합주단 부단장, 메시아국악관현악단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대석 곡 거문고를 위한 창작관현악 '달무리'는 1993년 작곡된 거문고 독주곡을 협주곡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문고협연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단원 엄애리가 맡아 거문고의 중후한 음색을 들려준다.

2부 무대 첫 곡으로 연주되는 정동희 곡 창작관현악 '월광'은 을숙도를 비추는 달빛을 표현한 곡으로, 부산에서 초연되는 작품이다. 마지막 곡으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박성희, 정선희가 노래하는 이준호 곡 '대수풀 노래'를 들려준다. 시인 김소월의 시를 국악관현악으로 창작한 이 곡은 을숙도가 철새들의 행복한 낙원이 되길 바라며 작곡한 곡으로, 김소월 시 특유의 시적 리듬과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가·무·악의 공유' 대표로 있는 박성희는 판소리 '흥부가' '수궁가' 완창무대와 2002년 서일본신문사 초청 판소리 독창회, 2005년 'Esat Asia Music Festival' 한국대표로 참가한 바 있다. 지방무형문화재 제 2호 정정렬제 춘향가 전수장학조교로 있는 정선희는 부산국악제전 판소리 명창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정정렬제 '춘향가' 완창무대를 가진 바 있다.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008 제 1회 부산국제민족음악축제

- 9월 23일(화) 오후 7:30 중국광파민족악단
- 9월 24일(수) 오후 7:30 몽골국립민속관현악단
- 9월 25일(목) 오후 7: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나라마다 그 나라의 민족정서가 담긴 개성 넘치는 민족음악이 있다. 2008년 가을, 한국과 중국, 몽고의 민족음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제1회 부산국제민족음악축제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한국과 중국, 몽고 세 나라의 서로 다른 빛깔의 음악을 들으며 가을 아시아 민족 음악여행을 떠나보자.

9월 23일 첫째날 중국을 대표하는 중국광파민족악단이 첫 무대를 연다. 중국광파민족악단은 중국방송예술단 산하의 한 단체로 120명에 이르는 대규모 악단이다. 2001년부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교류해온 중국광파민족악단은 오스트리아의 음악평론가들로부터 '일본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와 같은 제왕의 품격이 느껴진다'는 격찬을 받고 있는 팡가봉이 예술총감독을 맡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앙음악학원에서 작곡, 지휘수업을 한 팡가봉은 1996년 8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청년지휘자의 신분으로 네델란드 Hilversum시에서 주최한 제35회 Kirillkondrashin International Conductor's Masterclass에서 수학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객원지휘해 부산 음악애호가들과도 친숙한 팡가봉은 2005년 전 중국 영웅십걸에 4위로 뽑히기도 했다.

이번 무대는 '경전서곡', '월야고', '야심침', '요족무곡' 등 중국의 정서가 흐르는 곡과 '피치카토 폴카', '아이네클라이네 나하트 무지크' 등 클래식 명곡들을 그들만의 음악으로 재현해낸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중국 경극에 사용되는 호금인 '경호' 연주자 강극미, 중국의 대표적인 관악기인 '적' 연주자 후장청이 협연자로 출연, 우리에게 생소한 중국 고유악기의 선율을 들려준다.

둘째 날인 9월 24일은 몽골국립민속관현악단의 무대로 꾸며진다. 몽골국립민속관현악단은 1993년 창단, 그동안 몽골 민족의 문화와 예술을 국내외에 알리고 보급하는데 주력해왔다.

설립이후 현재까지 밧출롱 찬드 단장이 이끌고 있는 몽골국립민속관현악단은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터키, 마카오, 중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세계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성공적인 연주를 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북한에서 개최한 국제음악축제에서 최고상을 받은 바 있다. 상임지휘자 밧출롱 찬드는 마두금 연주자로 1986년부터 1992년까지 몽골 국립 전통음악/무용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몽골국립마두금합주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몽골의 민속악기인 마두금 연주를 부산에서 직접 들을 수 있다. 몽골의 희망적인 모습, 매우 웅장하며 진취적인 모습을 그린 관현악곡 '몽골의 아침', 피리협주곡 '열린 초원의 세계', 몽골의 민요 '남녀의 두마음' 등을 들으면 마음은 어느새 넓은 몽고 초원으로 달려간다.

마지막 날인 9월 25일은 수석지휘자 박호성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율인 '아리랑'을 현대적

인 감각으로 표현한 다양한 느낌의 아리랑 선율을 들려준다.

북한의 공훈 예술가 최성환이 1976년 작곡한 아름답고 부드러운 느낌의 창작관현악 '아리랑 환상곡'을 시작으로, 평양음악 무용대학 황진철교수가 1990년대에 작곡한 북한 개량단소 협주곡 '서도 아리랑', 한·중·일의 민족악단이 모인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장인 백대웅이 작곡한 관현악 '남도아리랑 환상곡', 개량된 25현 가야금을 양손 주법으로 타는 '아리랑', 소리와 창이 함께 있는 관현악 '아리랑 접속곡'으로 흥겨운 무대를 열어준다. 특히 백대웅 곡 관현악 '남도아리랑 환상곡'은 남도 지역인 경상도의 밀양아리랑과 전라도의 진도 아리랑을 원곡으로 작곡되었는데 부정거리 장단이나 청배 장단과 같은 무속리듬이나 재즈 중의 스윙 등 비트 있는 여러 리듬을 활용하고 있어 절로 흥이 난다. 이날 무대에서는 옥이 굴러가듯 부드러우면서도 우아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옥류금 연주로 듣는 '도라지'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번 무대를 위해 경기민요 명창 김혜란, 북한개량단소 연주자 장세철, 25현가야금 옥류금 연주자 김계옥, 소리꾼 박성희, 정선희가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 ■ 23일 제 1일 중국광파민족악단

- 지휘/팽가봉(예술총감독)
- 협연/강극미(경호), 후장청(적)

#### ■ 24일 제 2일 몽골국립민속관현악단

- 지휘/빛출롱 찬드(상임지휘자)
- 피리/김광복

#### ■ 25일 제 3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지휘/박호성(수석지휘자)
- 협연/장세철(북한 개량단소 · 안산시립국악단 대금 차석), 김계옥 (25현가야금, 옥류금 · 중앙대학교 교수), 김혜란(경기민요 · 한국민요연구회 이사장), 김보연, 배경화(경기민요), 박성희, 정선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팽 가 봉  
중국광파민족악단  
예술총감독



중국광파민족악단



빛출롱 찬드  
몽골국립민속관현악단  
상임지휘자



몽골국립민속관현악단



박 호 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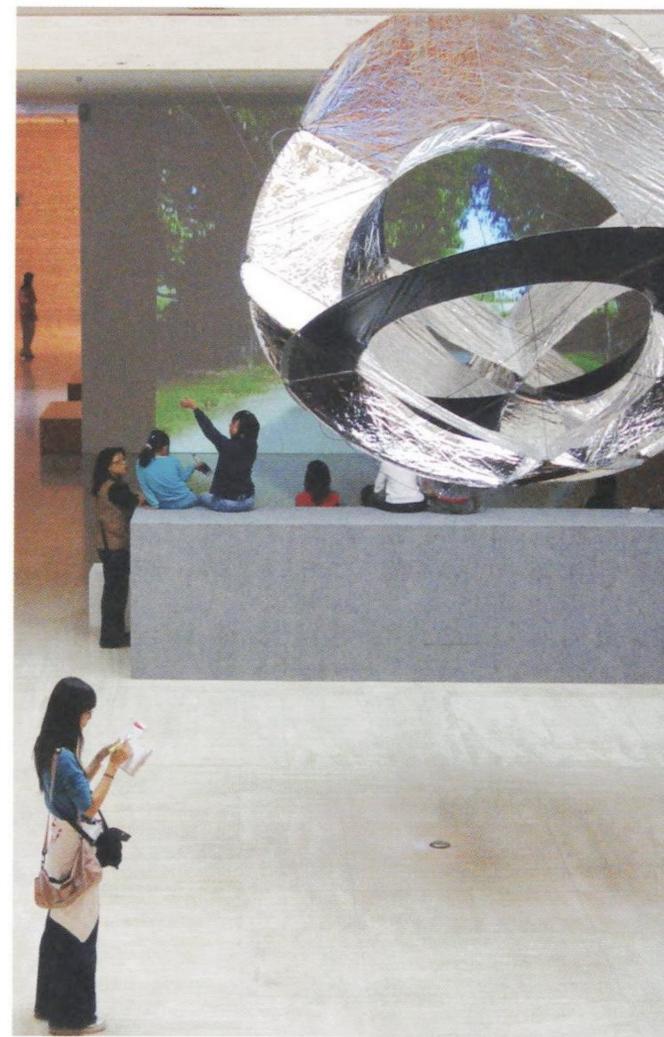
**입장료** 균일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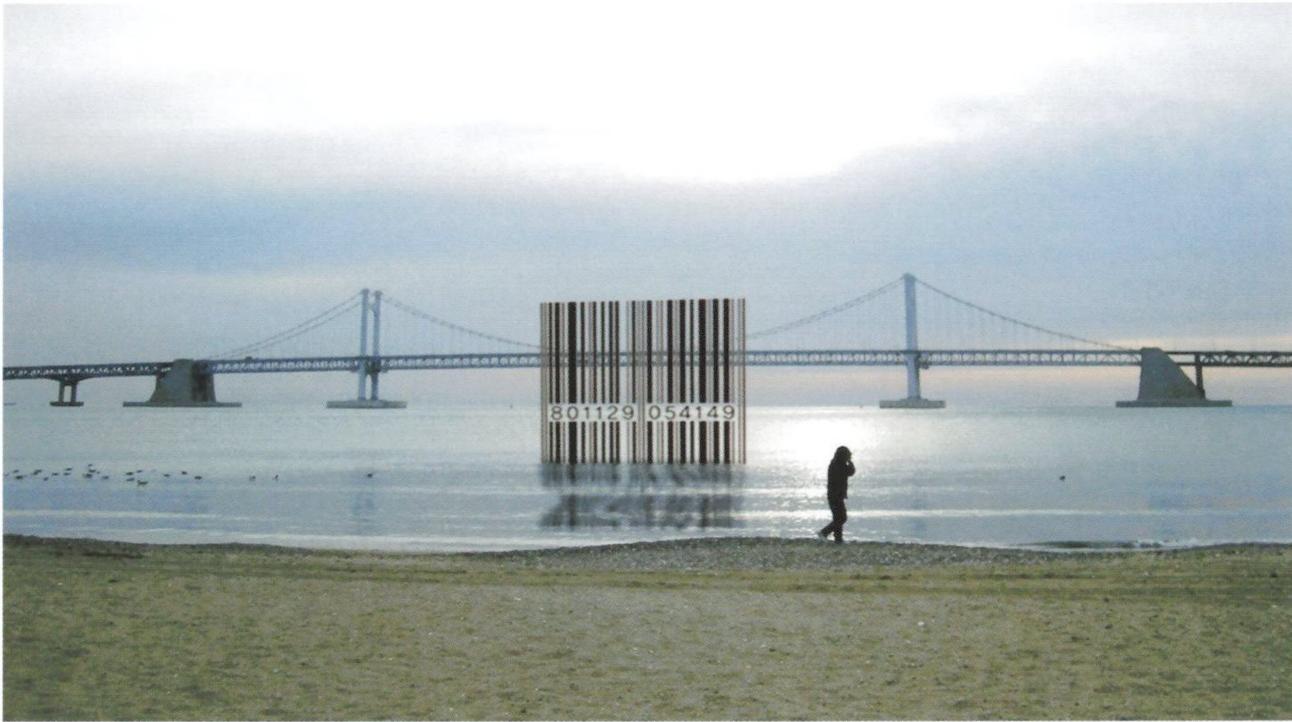
※ 30명 이상 일반 단체 20% 할인, 50명 이상 청소년 단체 4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008 부산비엔날레

## 낭비(Expenditure)





부산 최대의 미술축제 2008 부산비엔날레가 9월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축제의 장을 펼친다.

2008 부산비엔날레의 행사주제는 '낭비(Expenditure)'. 프랑스 사상가 조르주 바타이유의 사상에서 나온 개념인 '낭비(Expenditure)'는 문화와 예술이 생산과 구축, 보존과 증강의 행위보다는 이러한 생산물을 소모, 방출시키는 긍정적 의미에서의 '낭비'로 오늘날 문화와 예술을 정의하는 긍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008 부산비엔날레는 크게 현대미술전과 바다미술제, 부산 조각프로젝트, 특별전으로 구성된다. 세계 현대미술의 주요 동향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현대미술전은 회화, 영상설치, 건축, 퍼포먼스, 영화 등 다양한 양식의 실험적인 국내외 현대미술 작품들을 전시한다. 이번 현대미술전의 주제는 '낭비-항상 이미 지나치기 때문에'. 세계를 관리하는 질서와 권력의 과다로 특정지워지는 오늘날 현실속에서 현대미술의 '낭비'적 측면을 다양하게 조명해본다. 22개국 작가 93명의 작품 전시.

바다가 아름다운 도시 부산의 특성을 살린 '바다미술제'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부산비엔날레만의 특화된 전시로, 해양성과 개방성, 역동성, 독창성을 자랑한다. 이번 바다미술제의 주제는 '비시간성(非時間性)의 항해(航海)'. 비결정적인 미래와 예술 속에서 작가의 창작과정과 결과를 통해 바다미술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조우하는 전시이다. 광안대교, 부산불꽃축제, 바다빛미술관 등으로 최근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젊음의 공간 광안리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

로, 예술적 상상력으로 가득한 부산의 바다를 배경으로 26개국 작가 77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친환경적인 조각공원을 조성, 공공미술의 장으로 자리잡아 온 '조각프로젝트' 올해의 주제는 '전위적 정원(Avant-garden)'. 전위적 정원은 '앞선'이라는 의미를 가진 'Avant'와 사적 공간을 의미하는 'Garden'을 합성한 개념으로, 기존의 기념비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술로서의 전위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자연과 예술이 주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조각프로젝트'는 지난 1991년 부산시립미술관 올림픽공원을 시작으로 2002년 아시아드 조각광장과 암남공원, 2004년 을숙도에 이어 올해는 APEC나루공원에 조성된다. 20개국 작가 20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밖에도 부산지역 젊은 작가들이 부산비엔날레와 동일한 주제로 여는 '불가능한 낭비'展(8월 29일~10월 31일 대안공간 반디)과 아시아 현대미술의 근원인 한국, 중국, 대만의 현대미술 원로들을 초청하는 '미술은 살아있다'展(9월 5일~9월 19일, 부산광역시청 전시실),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작가와 자신의 화풍을 정착시킨 기성작가들의 작품을 공동전시하는 '미술은 지금이다'展(9월 5일~9월 20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부산지역 32개 화랑이 참여하는 갤러리 페스티벌(8월 20일~11월 2일) 등 다양한 특별전이 행사기간 동안 펼쳐진다.

2008 부산비엔날레 개막식은 9월 6일 오후 5시 부산시립미술관 옆 씨네파크 특설무대에서, 폐막식은 11월 15일 오후 4시 부산시립미술관 강당에서 펼쳐진다.

**관람료** 일반 7,000원 · 대학생 5,000원 · 청소년, 군경 4,000원 · 어린이 3,000원 · 4인 가족권 15,000원

(예매시 일반 5,000원 · 대학생 4,000원 · 청소년, 군경 3,500원 · 어린이 2,500원 · 4인 가족권 12,000원)

**문의**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사무국(888-6691~8, [www.busanbiennale.org](http://www.busanbiennale.org))

# 바다

## 그 무궁한 개척의 처녀지

민립 김 상 훈 | 시인, 민족시가연구소 이사장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나 혼자 걷노라면 수평선 멀리  
갈매기 한 두쌍이 가물거리네  
물결마저 잔잔한 바닷가에서

저녁노을 물드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노라면 수평선 멀리  
파란 바닷물은 꽃무늬지네  
모래마저 금 같은 바닷가에서

장수철 작시, 이계석 작곡의 '바닷가에서' 이다. 7~8월은 바다의 계절이었다. 바다를 그리워하고, 찾고 그 바다에 잠기고 안겨서 여름을 보내어야만 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열대야 속에서 바다는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는 바다를 믿고, 바다와 더불어 더위를 식히고 피했다.

대상(隊商)도 아닌 우리가 길고 긴 여름날(長長夏日) 열사(熱砂)의 모래길을 매우 고되고 힘겹게 이겨온 셈이다. 우리의 전통가락인 8/6박자의 '바닷가에서' 는 염열(炎熱)의 여름을 느낄 수가 없다. 바다풍경을 담담하게 표현한 노래로서 드뷔시 작곡의 '바다' 를 연상케 한다. 바다를 소재로 한 동요곡은 적지 않게 있다.

초록빛 바다물에 두 손을 담그면  
파란 하늘빛 물이 들지요  
어여쁜 초록빛 손이 되지요

초록빛 여울에 두 발을 담그면  
물결이 살랑 어루만져요  
물결이 살랑 어루만져요

아침바다 갈매기는 금빛을 싣고  
고기잡이 배들은 노래를 싣고  
희망에 찬 아침바다 노저어가요  
희망에 찬 아침바다 노저어가요

저녁바다 갈매기는 행복을 싣고  
고기잡이배들은 고기를 싣고  
넓고 넓은 바다를 노저어와요  
넓고 넓은 바다를 노저어와요

앞의 노래는 박경중 작시, 이계석 작곡의 동요 '초록빛 바다' 이고, 뒤의 노래는 문병호 작시, 권길상 작곡의 동요 '바다' 이다. 앞의 동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이며, 뒤의 노래는 희망에 찬 바다,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바다를 노래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또한 예술과 학문의 시대라고도 하고 새로운 바다(新海洋化)의 시대라고도 한다. 따라서 바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도 크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옛날의 바다는 단절의 바다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바다는 연결의 바다이다. 옛날의 바다는 공포와 죽음의 바다였으나 오늘의 바다는 희망과 소생의 바다이다. 옛날의 바다는 전쟁의 바다였으나 오늘의 바다는 평화의 바다이다. 옛날의 바다는 파괴의 바다였으나 오늘의 바다는 생산의 바다이다. 해운과 수산의 역할과 항만의 기능이 국부(國富) 창출(創出)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양자원 및 해저자원이 인류의 마지막 보고(寶庫)로 평가되고 있다.

“바다는 그릇(器)됨이 하늘의 오리(奧理)를 내포했고, 땅의 구구(丘區)를 포괄했다. 오직 천신(天神)의 곳ियो 지저(地底)의 집이다. 무슨 기특한 것인들 없는 것 있겠으며 어떤 괴이한 것도 모이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망망(茫茫)한 적류(積流)여! 모든 형체를 갖추어 속으로 허(虛)했다. 넓다. 감(坎:구덩이) 덕이여! 자비(自卑:겸손함)를 다질 뿐이다. 움직이고, 포용하고, 모든 종(宗)이요 모든 도(都)이다. 제대로 생겨난 품물(品物),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가?”

현허(玄虛)의 '해부(海賦)'란 글이다. 바다를 묘사한 글 가운데 매우 깊은 철학적 사유를 동반하고 있는 글이라고 하겠다.

바다의 끝없이 넓고 깊은 실상, 그 속에 모든 것을 죄다 수납(收納)하고 귀속(歸屬)시키고 포용(包容)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한없는 겸허의 철학을 가진 바다를 잘 표현하고 있다.

바다는 오염(汚染)되지 않은 원시적이며 야성적인 순수를 지키고 있다. 어떠한 탁류(濁流)가 흘러들어도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죄다 안아 들여 자신의 원시적 순수 속에 용해(溶解)하고 귀화(歸化)시킨다.

“바다여/너는 거센 승리자/터지는 슬픔을 억누르고/최대한의 치욕(恥辱)을 씹는다//바다여/너는 강력한 실력자/기만과 모함을 모르고/수단과 아부를 모른다//너의 신념이/너의 정열이/너의 침묵이/모두가 그것들/그것들이/너의 진한 생명이고 보면/너는 그 앞에서 온갖 것/슬픔을 쏟아놓고/자신의 구원을 받는다//바다여 너는/실존주의자/바다여 너는/행동주의자”

박거영(朴巨影) 시인의 '바다여 너는 强者'란 詩다. 바다의 계절 8월도 바닷물이 모래톱을 어루만지면서 지나가듯 서서히 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입추(8월 7일)와 말복(8월 8일)을 넘기고 처서(8월 23일)가 지나면 백로(9월 7일)가 성큼 다가올 것이다.

올 여름 더위를 식혀주기도 하고, 쫓아주기도 하던 바닷물, 바닷바람에게 우리가 보살할 것은 무엇일까? 바다의 깊이, 바다의 넓이, 그 무량덕(無量德)을 본받고, 바다의 힘과 정열, 그 무량력(無量力)을 닮아 신해양화시대에 인류역사의 주격적 자아(主格的 自我), 창조적 자아(創造的 自我)로 우뚝 서야만 할 일이다.

바다는 이제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갈 양양(洋洋)한 수로(水路)요 탄탄(坦坦)한 대도(大道)이다. 바다는 이제 육지의 전답(田畝) 못지않게 가꾸어야 할 풍전(豐田)이요 옥답(玉沓)이다. 바다는 이제 무한도전(無限挑戰), 무한개척의 처녀지(處女地)이다.

아침바다 갈매기는 금빛을 싣고  
고기잡이배들은 노래를 싣고

원고를 쓰는 중에도 줄곧 콧노래가 나온다.

# 자연이 예술인 나라 캐나다

공 정 배 | 솔오페라단 예술감독, 캐나다 통신원



다운타운 중심에 위치한 수증기로 움직이는 시계앞에 선 필자

초등학교 시절 우리 학교는 서울로 수학여행을 갔었다. 다들 경주로 가는데 우리 학교는 서울로 갔다. 완행 기차를 타고 지쳐서 내린 서울은 볼거리가 많았다. 경복궁, 남대문 등 그리고 경치는 남산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본 것이 전부다. 서울 가서 본 것은 거의 고적 답사였다.

내가 사는 캐나다는 고적이나 멋진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고 자연이 있는 나라다. 다운타운(미주도시들은 대부분 도시 중심지를 다운타운이라고 함)에 가면 볼거리가 하나 있는데 수증기로 움직이는 시계이다. 그냥 큰 길거리에 서 있는, 꽤나 오래된 시계인데 그 곳에서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는다. 사실 로마의 콜로세움 하나면 캐나다 전체의 고적을 대체하고도 남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자연에 있어서는 다르다. 집 주위가 온통 우람한 나무이다. 특히 우리 집은 변두리라 수목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이 지천에 있다. 집 앞에 프레이저강이 흐르는데 1년에 사카이 연어 등 연어 수천만 마리가 올라온다. 연어가 올라 올 때는 장관인데, 그 올라오는 모습에서 삶의 생동감을 느낀다.

자연 친화, 이곳 사람들은 이것이 생활이 되어 있다. 좀 불편해도 공해 산업은 하지 않기 때문에 굴뚝은 볼 수 없다. 집 주위에 100년 전 댐 공사로 인해 연어 회귀가 중단된 강줄기가 두 곳 있었는데 끊임없는 노력으로 거의 100년 만인 지난해와 올해 드디어 연어가 돌아와



집 가까이에 있는 피트호수



동네마다 있는 물놀이 공원



캐나다의 동네마다 작은 연주홀이 있다. 우리동네 음악당 ACT홀



동네 기차역

마을은 축제 분위기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프레이저강 다리 공사가 65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건설되기 시작했지만 다리 건설로 말미암은 환경 파괴 때문에 걱정이 많다. 환경 보호와 인간 편리의 논쟁은 65년 만에 끝을 보았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다.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여파로 할 수 없이 건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면 벌써 다리 여러 개가 건설되었을 법하지만 이들은 자연 훼손이 따르는 다리 건설을 원치 않는다.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지만 이제 많이 이해하는 편이다.

캐나다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익숙한 듯하다. 집 주위에 페리 부두가 있다. 배로 한 10분 건너는 강폭이다. 보통 한 시간은 죽히 기다려야 해서 페리를 기다릴 때는 '다리 좀 놓고 살지' 하는 간절함이 생기지만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우리 집 주위에 철길 건널목이 있다. 이곳의 화물 열차는

화물칸이 200 여개가 넘고 기차는 정말 천천히 달린다. 기차가 지나가면 죽히 10분은 걸린다. 모두 시동 끄고 여유 있게 기다리지만 처음엔 '지하 터널 하나 만들지' 하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요즘은 별 불평 없다.

이곳은 대부분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이다. 휴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원 가꾸기를 한다. 내가 볼 때는 거의 중독인 것 같다. 얼마나 아름답게 정원을 가꾸는지 내기라도 하듯이(?) 동네가 아름답다. 특히 백인들이 많이 사는 우리 동네는 더욱 아름답다.

캐나다는 공원이 많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호수와 공원은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우리 동네에는 골든 이어(황금귀)라고 불리는 좋은 공원과 피트 호수가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호수와 여름에도 산꼭대기에 눈을 이고 있는 골든 이어산, 정말 보기에 좋다. 물론 다른 공원도 있지만 이 둘은 우리

동네 자랑거리다.

우리 집에서 20분 거리 내에 골프장이 8개가 있다. 골프는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자연 친화적 스포츠이다. 그냥 오후에 동네 친구들과 골프장으로 운동하러 간다. 그렇다고 대충 골프장이 아니다. 호수를 끼고 있는 골프장, 멋진 산을 등지고 있는 골프장, 멋있고 필드 관리도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동네 옆 체육공원에는 야구장 8개를 갖춘 공원이 있다. 물론 축구도 한다. 전부 잔디 구장이다. 그 외 테니스장, 수영장, 아이스 하키장도 같이 있다. 학생들은 수업 후에 이곳에 와서 야구, 축구 등 운동을 하는데 모두 유니폼 제대로 입고 선수들 같이 운동한다. 재미있어 난 관람객이 되어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현지의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가 없다. 유학생인 경우나 이민자들의 자녀들은 영어가 모자라 학원을 다닌다. 한국서 대학 강의와 고등학교에서 선생을 한 경험이 있어 이곳에서의 교육을 약간만 얘기할까 한다. 사실 거의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수업 시간은 보통 아침 8시 30분 전후로 각 학교는 약간씩 다르다. 마치는 시간은 오후 3시경이다. 초등학교 1학년도 똑 같다. 모두 도시락을 가지고 간다. 주로 샌드위치지만 우리 아들 녀석이 빵을 싫어해 매번 밥과 한국 반찬을 가지고 가면 학생들 끼리 먹는데 한국 반찬이 최고 인기라 막상 자기는 얼마 먹지 못한다고 했다.

학교를 마치면 숙제가 있긴 하지만 숙제를 하고 나면 아이들은 그냥 자기 세상이다. 작년인가 어느 곳에서 한인 하숙집에 한국의 어린 학생들이 많이 유학 오면서 방과후 늦게 까지 집에서 따로 과외 시키다가 어느 부모의 고발로 시 교육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 후 얼마동안 놀고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하는 학생이 더 대단했다. “한국에서는 이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시 교육위원회에서 얼마간 일하면서 학생 지도자(가디언)를 한 적이 있었다. 한번은 문제 학생회의에 참석했는데 결석을 많이 한 학생에 대한 회의였다. 유학생이었는데 회의 참석자는 교장, 교감, 지도교사(카운셀러), 교육위원회에서 2인, 가디언(유학생인 경우 학생 지도할 성인) 그리고 하숙집 주인, 이렇게 참석해서 회의 중 삼진 아웃 제를 적용하는 것을 보았다.

이미 두 번 경고 받았으면 세 번째는 퇴학이었다. 두 번까지는 봐 준다는 것이다. 이유는 학생이 학교를 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사고를 당하면 모든 책임은 학교에서 지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방지하고 부모에게로 돌려 보낸다. 이런 경우 공립학교

의 전학은 불가능하고 사립학교로 가야한다.

끝까지 학생을 기다리고 설득하는 것이 이곳 교육이고 학생 위주의 교육이다. 학교 앞에 문방구가 없다. 처음에 너무 이상했다. 물론 학교 앞 떡볶이 집도 없다.

이제 캐나다의 예술을, 그 중에서도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소개해 본다.

밴쿠버에는 오페라단의 활동이 활발하다. 오페라 극장 이름은 엘리자베스 극장이다. 이름부터 영국 냄새가 난다. 매년 5개 정도의 작품을 정기 공연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공연을 끝내고 현재 수리 중이다. 2008-2009 시즌에는 리골렛토, 카르멘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음악들의 준비 중이다.

물론 가수들은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출연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신영조 선생의 제자가 출연하여 신선생님이 직접 다녀 가기도 했다. 이곳의 음악들은 거의 완벽을 추구한다. 학생들이 활동하는 오케스트라도 정말 잘한다. 이곳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의 음악대학은 세계 30위권을 자랑하는 대학으로, 오페라 수업은 캐나다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기악과도 아주 뛰어나다. 이곳에서 연주하는 학생들의 수준을 처음 접했을 때 상당히 놀랐다.

오케스트라는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다. 이 단체는 세계 연주가들을 많이 초청해서 협연하고 있는데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와 첼리스트 장한나도 얼마전 협연자로 다녀갔고 올해 초 소프라노 조수미도 다녀갔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B.C)내 첸 센터에서 주로 공연하고 있다. U.B.C 는 밴쿠버 서쪽 끝자락 바닷가에 있어서 저녁 공연을 보러가기가 힘든 편이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 교향악단들이 있고 바하 코랄이라는 전문적 합창단도 있다. 이들은 세계를 무대로 연주를 다니는 유명한 단체이다. 남성합창단 리오네가 있는데 이들은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이지만 연주 수준은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우리 동네 연주 홀도 멋있다. 600석 정도의 홀인데 주로 현대물과 재즈를 많이 공연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동네마다 조그마한 연주홀이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노스 밴쿠버 바닷가에 조그만 갤러리 겸 연주회장이 있는데 바다 바로 근처라 분위기가 좋다. 주위에 꽃도 많고, 그림 전시장으로 쓰인다. 회원제 연주장인데 200여명을 수용하는 아담한 연주장이다.

이들은 직접 회비를 내고 연주가들을 초청해 음악을 즐긴다.

옛날 유럽 쇼팽 시대를 보는 것 같이 유명한 연주가들이 많이 초청되고 연주 후 연주가와 대담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술의 진가를 느낀다.

나도 한번 초청되어 독창회를 가진 적이 있다. 전체적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다. 독창회 곡중 한국 가곡을 내 나름대로 해설해 가면서 몇곡 불렀는데 그들은 한국 음악이 뛰어나다고 들었다.

이곳에 살고있는 한인들도 그 나름대로 음악 활동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필그림합창단이다. 지휘자 석필원 씨는 오래전에 이민와서 한인 합창단을 조직하고 오케스트라도 조직해서 열심히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 그 역사가 20년이 넘고 있다. 힘든 이민생활의 활력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부인 또한 서울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다. 이들의 초창기 이민 생활과 음악 생활은 고생이 많았으리라. 이제는 많은 제자들을 배출해 캐나다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인 합창단들이 있지만 아직도 생기고 사라지고 반복 중이다. 이곳은 연말에 꼭 메시아를 한다. 많은 음악단체들이 메시아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메시아 독창자로 한 두 번 무대에 섰지만 이곳에서는 여러번 초청되어 메시아 공연을 가졌다.

언젠가 캐나다 북쪽 마을 캠롭스라는 곳에 공연을 간적 있다. 조그만 교회를 빌려서 했는데 참석한 50여명의 한인들과

캐네디언들의 감동은 대단했다. 그곳에서 300Km 떨어진 곳에서도 연주를 보러온 한인들이 있었다. 15가구 사는 오지 마을에 한인 가족은 자기 한 가정이란다. 난 그 날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우리 가곡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교민들의 감동을... 아! 질기기도 질긴 한인들의 생활력과 삶의 추구, 록키 산자락에서 뭘 하시고 사시는지? 이런 감동의 얘기는 끝이 없다.

밴쿠버 심포니는 매년 디어 공원에서 야외 음악회를 가진다. 팝, 재즈 페스티벌이 곳곳에서 열리고 셰익스피어 연극 축제도 열린다. 이곳은 여름의 나라다. 불꽃 축제도 각 나라별로 경쟁하듯 열린다. 아직 한국은 참가하지 않았다.

반대로 겨울은 정말 잠잠하다. 그렇게 춥지는 않지만 10월부터 내리는 비가 춘 3월까지 온다. 그래서 겨울나기가 힘들다.

이곳은 세계 50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 각 나라 고유의 문화를 서로 인정해주고 모자이크처럼 모여서 산다. 서로의 간섭 없이 존중하면서 살지만 서로 마음의 문을 열기가 힘들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와 풍습이 다르기에 닫혀 있는 세계에 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 냄새가 그립다. 부딪치는 사람, 사람, 사람, 이것이 그립다. 꿈장어, 광안리 바다, 여기 바다는 염도가 약해 바다 냄새가 없다. 광안리 활어 시장 냄새... 인간은 참 간사한 것 같다. 국에서는 이곳이 그립고, 이곳에 있으면 금방 한국이 그리워진다. 어디 중간쯤 되는 나라 없을까?

끝없이 펼쳐진 블루베리 농장



## 아르헨티나 I

#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걱정과 우울, 탱고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운 반도네온(bandoneon)의 어둡고 무거운 음색. 강렬한 악센트가 귀와 가슴을 두드리는 걱정적인 음악에

맞춰 굽 높은 구두를 신은 남자가 옆이 터진 치마를 입은 여인을 내려다보며 관능적인 동작으로 춤을 이어 가는 무대. 전문적인 공연을 보지 않았더라도 여러 영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이 장면은 바로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춤이자 음악인 탱고(tango: '땅고'가 정확한 발음이지만,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발음대로 '탱고'로 표기함)의 무대 모습이다. 스페인의 플라멩고와 함께 가장 인상적인 예술로 손꼽히는 탱고는 음악뿐만 아니라 그 춤이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매력으로 인해 '네 다리 사이의 예술'이라 불리기도 했다.

남미의 유럽으로 불리며 지난 세기의 초엽,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했던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음악 탱고는, 지금은 '춤추기 위한 음악'이 아닌 '감상을 위한 음악'으로서 클래식과 재즈에서도 중요한 음악적 소재로 연주되는 '세계의 음악'이 되어 있다. 이 탱고를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린 장본인이 바로 20세기 최고의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아스토르 피아졸라(Astor Piazzolla)'이다.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걱정적인 감성과 강렬한 리듬으로 인해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표현이 쓰일 정도로 듣는 사람을 사로잡는 탱고, 그 거부하기 힘든 매력의 세계는 장르를 뛰어 넘어 다양한 취향의 음악 애호가들을 유혹한다.

때로 문화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역류하기도 한다. 브라질의 삼바나 포르투갈의 파두가 그랬듯, 탱고 역시 그러한 역사를 밟아 지금의 예술적 경지에 이른 음악이다. 아르헨티나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인 탱고는 아르헨티나의 음악이라기보다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도시의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보카(Boca)'라는 지역이 탱고가 태어난 곳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황 윤 기 | 음악 칼럼니스트 ·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1880년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되어 1930년 대까지 급속한 팽창을 이루며 '남미의 파리'로 불릴 만큼 유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또한 1차 세계대전까지 유럽으로부터 엄청난 수의 이민자들이 몰려와 1920년대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민의 70% 이상이 유럽 이민자들과 그 자손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공업지구와 접해있던 지저분한 항구 지역 보카에는 이탈리아 출신이 주를 이루는 극빈층 이민자들이 모여 살았다. 이들은 주로 항구의 노동자였고,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슴 깊이 품고 있었다. 여러 가지 음악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탱고는 벗어나기 힘든 가난과 체념에 빠져 살았던 이들 하층민의 정서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탱고가 지닌 강한 호소력은 향수와 고독에 찌든 항구 지역 하층민들의 걱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음악적으로 탱고의 모체가 되는 것은 19세기 초 쿠바에서 유행했던 '아바네라(Habanera)'라는 음악이다. 우아한 춤곡인 아바네라는 19세기 중엽 아르헨티나의 선원들에 의해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전해졌고, 강한 템포감과 아르헨티나풍의 선율이 실린 민요 형식의 춤곡인 '밀롱가(Milonga)'와 만나게 된다. 여기에 19세기 후반 독특한 싱커페이션을 지닌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음악 '칸돔블레(Candomble)'가 큰 영향을 주면서 탱고가 된 것이다. 또한 당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들어와 있던 유럽 무곡의 크고 작은 영향도 분명히 받았을 것이다.

이처럼 탱고는 라틴 아메리카의 민속적인 음악 요소와 아프리카의 리듬적인 요소, 유럽 춤곡의 영향이 섞여 있는 복합적인 음악이다. 이는 당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들어와 있던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탱고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항구 도시가 지니고 있었던 특별한 분위기이다. 가난한 이민자들의 향수와 라틴의 기질이 만나 표출된 우울한 고독감과 걱정적인 감성, 춤과 함께 표현되어 온 탱고라는 예술이 지닌 가장 근본적인 정서인 것이다.

# 부산은행 부은합창단



동료들과 같은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애사심까지 함께 키울 수 있는 직장동호회가 최근들어 늘고 있다. 지난 6월 새롭게 출발한 부은합창단 역시 부산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결성된 직장동호회이다.

사실 부은합창단의 역사는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지역 직장 대항 합창경연대회에서 수상하고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참석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지녔다고 하지만 지금은 현재 합창단 고문으로 있는 강종덕 씨의 회고를 통해 그 명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1987년 재창단될 때까지 오랜 기간 그 명맥이 끊겼던 부은합창단은 1988년부터 한마음전진대회, 체육행사 등 직장 공식행사와 부산시 주최 저축의 날 행사 등 다양한 무대에 활동했다. 그러나 IMF가 터진 1998년 부은합창단은 또 한번의 큰 고비를 맞았다. 명예퇴직으로 많은 직원들이 떠나면서 결국 합창단도 해체되었던 것. 두번의 난관을 겪은 뒤 10년만에 새롭게 결성된 만큼 합창단 단원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부은합창단은 매달 두차례 열리는 정기모임을 통해 화음을 맞

추고 있다. 아직은 자체 연습실이 없어 부산코러스합창단 연습실을 이용하고 있다. 음치 탈출을 위해 가입한 단원들부터 다른 합창단 활동을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은 단원들까지 62명 단원들의 실력은 천차만별이지만 노래에 대한 열의만큼은 모든 단원들이 똑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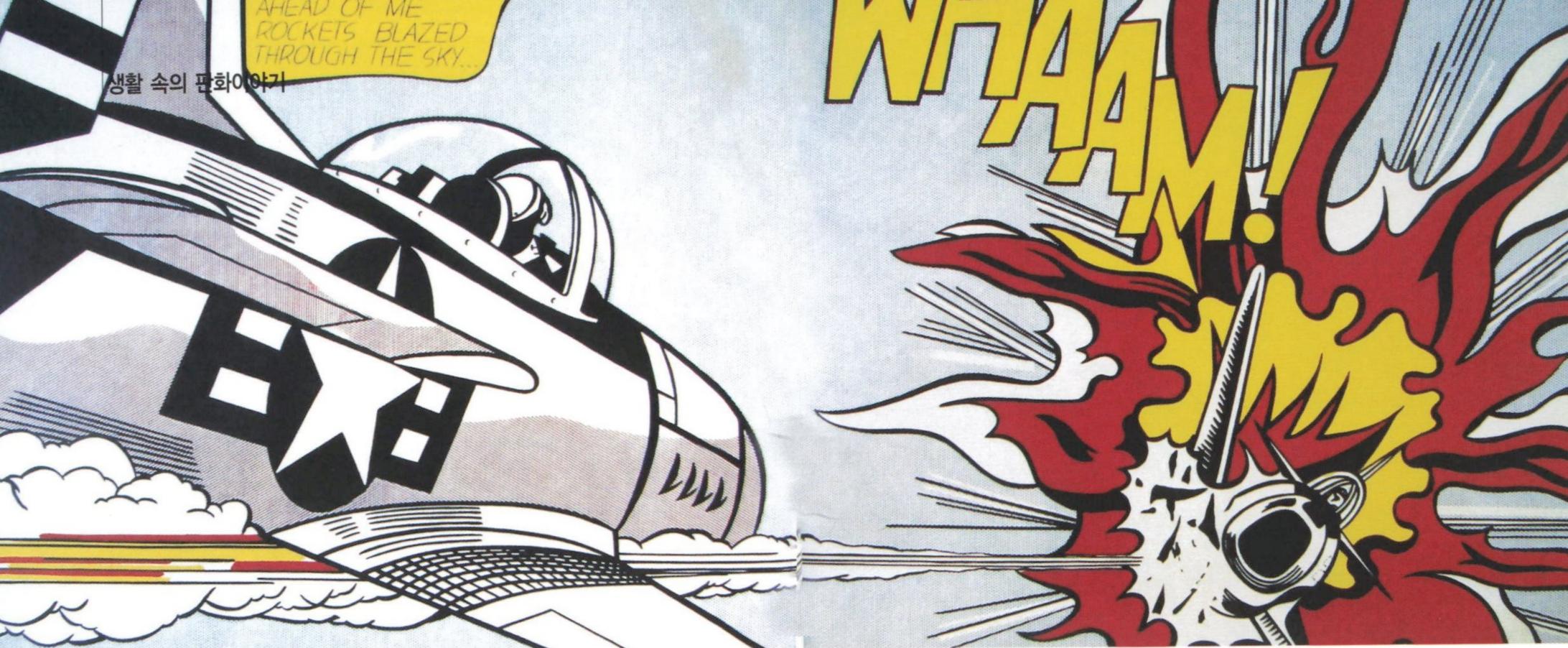
“아직은 창단 초기라 발성법이나 호흡법, 악보 보는 법 등 기초적인 실력을 쌓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은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는 PB사업부 김성홍 부부장. 1987년 창단 때도 지휘를 맡았던 그는 남성성악동호회인 멜로매니아와 부산음악사랑회, 부부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합창매니아이다.

“앞으로 실력향상을 위해 전문 지휘자와 성악가를 초빙해 체계적인 실력을 쌓겠다”는 김성홍 지휘자.

“어려운 이웃을 찾아 음악사랑도 함께 펼쳐나가겠다”는 그는 내년 1월에 있을 전 직원 공식행사 무대에서 부은합창단 첫 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AHEAD OF M  
ROCKETS BLAZED  
THROUGH THE SKY...



로이 리히텐슈타인 작 '굉'

## 대중을 사로잡은 팝아트, 실크스크린

채 경 혜 |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

미술에의 관심은 예술성과는 상관없이 일상적이긴 하지만 엉뚱한 사회현상 때문에 집중되기 일쑤다. 부동산경기가 저조할 때 당연히 투자의 대상으로 미술품에 눈길이 가고, 소장가치만이 아니라 투자가치를 따져 구입하게 된다. 또 해외에서 국내작가의 작품이 고가로 경매가 이뤄지게 되면 그 열기는 국내로 파급되어 급속도로 팽창하게 된다. 지난 3년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박수근의 작품이 목판화 9점을 포함하여 총 11점에 17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같은 기간 국내에서는 총 219억 원의 매출에 위작시비까지 일어났었다.

그리고 삼성비자금 수사가 이뤄지면서 화제가 되었던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은 90억원이라는 낙찰금액만큼이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미술에 문외한이었던 사람들이나 초등학생들까지도 '행복한 눈물'이 <팝아트>라는 것과 <실크스크린>이라는 정도는 알게 되었다.

실크스크린(Silkscreen)은 4개의 주요 판화기법(볼록판화·오목판화·평판화·공판화)중 가장 역사가 짧다. 물론 방법적으로는 단순한 초기 스텐실 방법들과 매우 유사하지만 초

기 스텐실과 염료들은 유기질을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단지 AD 500에서 1000년 사이 중국과 일본에서 스텐실을 응용해서 염료와 물감을 두껍게 올리는 <직물 프린팅>에 활용되었다는 정도로만 기록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동양의 스텐실기법은 13세기 말과 14세기 초에 마르코 폴로에 의하여 유럽에 소개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형태와 패턴 정도의 조잡한 수준이었다가 1850년대 중반 페리에 의해 일본이 유럽에 소개되면서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본이 섬세한 실크실과 머리털로 다양한 형태를 적정한 장소에 고정시키는 방법을 완성해서 복잡한 패턴의 표현이 가능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이 현대 스크린프린트의 직접적인 시초로 볼 수 있다.

20세기 초기의 실크스크린은 주로 상업용이었다. 실크스크린은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대담한 디자인과 컬러로 광고 산업에 어필하면서부터 광고판은 거의 실크스크린에 의존하게 되었고, 원통 모양의 병, 캔 등 다양한 형태로 프린트될 수 있는 이점을 일상 속에 충분히 활용했다.



데이비드 호크니 작 '비버리 힐즈의 사워하는 남자'



로이 리히텐슈타인 작 '행복한 눈물'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크스크린은 점차 예술적 영역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예술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실크스크린이란 용어와 차별화하는 세리그라프(Serigraph=Silkscreen)란 신조어도 생겨났다.

1940년에 형성된 내셔널 세리그라프 소사이어티(National Serigraph Society)는 전 세계에 순수미술로서의 스크린 판화들을 선 보였으며, 미술관에서는 스크린 판화들을 소장품 목록에 포함시켰고, 예술적 정통성이 증진되면서 세리그라프는 자연스럽게 판화미술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렇듯 대중에게 어필하기에 완벽한 매개체로서 검증받은 실크스크린은 어쩌면 통속적이고 대중생산적인 팝아트가 활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기법이었을 것이다.

팝아트는 1950년대 후반 영국에서 출발했지만 미국에서 성공한 미래 지향적인 미국 사회의 산물이다. 팝이란 용어는 광범위한 영역의 다양한 예술활동들을 총망라한다는 의미로 선택되었다. 1962년 알로웨이가 그 의미를 확대시킴으로써 순수 미술 속에 대중적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미술가들의 활동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다. 사실 팝이란 명칭은 대중음악의 가수나 그룹을 연상시켜 1960년대 대중 음악가들의 세계적 성공과 맞물리면서 대중매체의 관심을 끌기 용이했으며, 관심을 표명하는 대중매체 자체도 이러한 예술운동에 선구로 보여지는 다양한 이점이 있었다.

팝아트의 공통점은 매스미디어의 형상과 때로는 기법까지도 이용한다는 점이였다. 여기에 영화배우와 대중적 스타, 대중적 영웅들이 포함되면서 대부분 20대였던 작가들이 젊은 대중 층과 그들의 열정에 노골적으로 보조를 맞췄다. 특히 미국의 로이 리히텐슈타인, 앤디 워홀, 클래스 올덴버그, 탐 웨슬만,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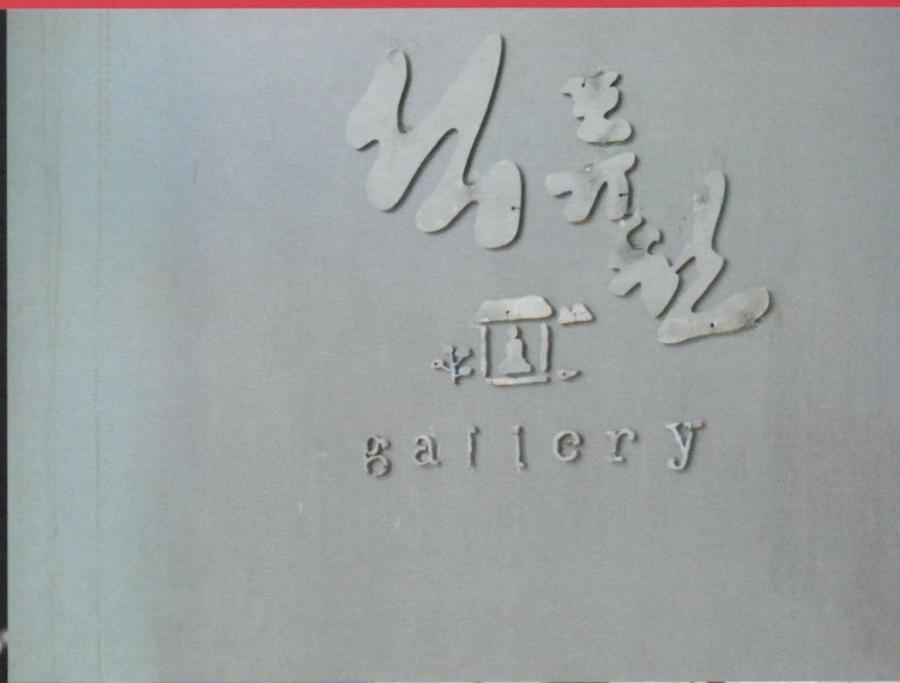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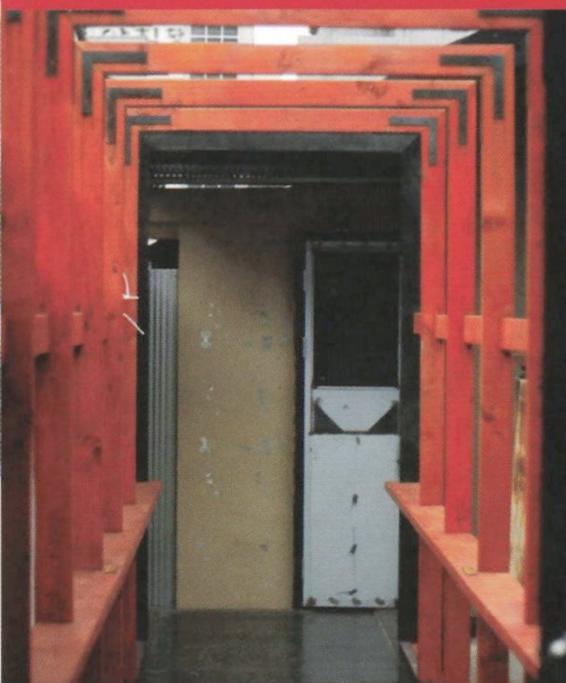
임스 로젠퀴스트, 로버트 인디애나, 영국의 데이비드 호크니, 피터 블레이크 같은 팝 미술가들은 작품에서 현대생활에 강한 충격을 주는 대중문화의 모든 현상을 가리지 않고 특징적으로 묘사했다. 이들은 작품 속에 어떤 긍정도 부정도 담지 않고 노골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매스 미디어에서 사용된 정확한 상업적 기법을 수단으로 도상학적인 측면을 객관적으로 드러냈다.

대중적 형상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예가 '행복한 눈물'과 '마릴린 먼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로이 리히텐슈타인과 앤디 워홀을 들 수 있다. 두 화가 모두 상업미술에 종사했다는 공통적 경험이 있는 만큼, 1960~61년 각자 독자적으로 자신들 특유의 그림소재를 대중매체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리히텐슈타인은 만화의 형식·주제·기법 등을 그대로 빌어 왔으며, 워홀은 도처에서 반복되는 광고의 속성을 차용하였다. 리히텐슈타인은 세잔, 피카소, 몬드리안 등 모더니즘 대가들의 그림들과 그리스 신전, 일몰, 풍경 등을 찍은 그림엽서, 1920년대의 아르데코 디자인들을 만화의 통속적인 표현양식으로 변형시켜 만화 한 것에 미국이라는 이념의 상징을 담았다. 그리고 워홀은 일찍부터 사진형상들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같은 유명 영화배우들, 재클린, 케네디 같은 공적인 인물들, 범죄자들, 공포스러운 전기의자나 자동차 충돌 장면, 그리고 소나 꽃과 같이 평범한 형상들을 캔버스 위에 반복하고, 색채를 첨가해 때로 애매모호하게, 때로 보다 평범하게, 때로 끔직한 느낌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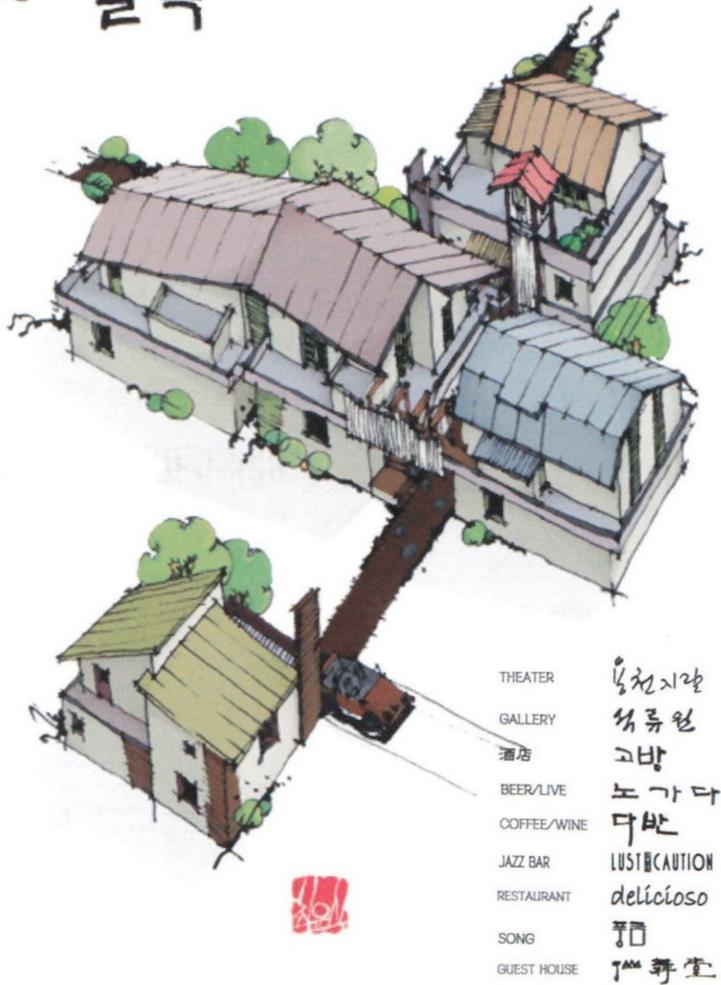
이렇듯 대중적 이미지를 충분히 활용한 팝아트는 생활에 직접 반응하는 미술, 전문가와 훈련받지 않은 관람자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미술로서 평가되면서 대중 속에 자리 잡았다.



부산의 대학로를 꿈꾼다  
복합문화공간 문화골목



# 문화골목



이젠 문화예술도 멀티플렉스로 즐긴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놀거리가 가득한 이색공간 '문화골목'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경성대학교와 부경대학교가 바로 인접한 대연동 주택가 골목 한가운데에 자리잡은 '문화골목'은 건축가 최윤식 씨가 주택 4채를 개조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이다.

'문화골목' 로고가 선명한 종탑을 올라다보며 '골목' 입구에 들어서면 석류나무 한 그루가 관람객을 반갑게 맞는다. 바로 갤러리 석류원이다. 갤러리 석류원은 생활공간에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 작업을 통해 꽃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소개해온 작가 박봉련 씨가 마련한 갤러리이다. 석류원에 들어서면 내장재를 거의 쓰지 않은 소박하면서도 자연스런 공간속에 전시장 천정 한 칸에 큰 가지 하나를 걸친 나무 한 그루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지난 5월 개관전으로 '안중연, 박봉련 2인전-LIGHT IN TIME & SPACE'을 가졌던 갤러리 석류원은 앞으로 다양한 전시로 골목을 찾는 시민들에게 쉼터같은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갤러리 석류원을 나와 이층으로 올라가면 용천지랄소극장을 만날 수 있다. 극장 이름부터 생동하는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은 비록 규모는 80석의 작은 소극장이지만 그만큼 관객들과

가깝게 호흡할 수 있어 벌써부터 연극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한달간 연희단거리패의 인기레퍼토리 '서툰사람들'을 개관 기념무대로 선보였던 용천지랄소극장은 9월에는 설화 '바리데기'를 전통연희극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극단 동녘의 '바리데기' (8월 21일~9월 7일)와 의원역을 맡은 연극배우와 그를 진짜 의원으로 착각한 도둑과의 해프닝을 그린 극단 바문사의 '의원놈, 도둑님' (9월 9일~9월 21일)을 무대에 올린다.

한 편의 연극과 전시로 눈이 즐거웠다면 이제는 귀를 즐겁게 할 차례. 맞은편 건물 2층에 자리한 라이브카페 '노가다'에는 엄청난 수의 LP음반이 소장되어 있다. '오래된 노래가 많다'는 뜻의 '노가다(老歌多)'에는 라이브공연을 펼칠 수 있는 작은 무대도 준비되어 있어 통기타가수나 락그룹 등 작은 콘서트가 열리기도 한다.

이밖에도 오래된 문짝을 탁자로 사용한 고풍스런 느낌의 커피/와인바 '다반'에서부터 버려진 나전칠기 가구를 활용한 색다른 느낌의 재즈바 '색계', 연극, 전시회 포스터로 벽을 장식한 주점 '고방', 그리고 레스토랑 'Delicioso'까지 공연관람 후 그 느낌을 소통하고 여흥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골목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음주 후 가무는 빠지기 힘든 법. 흥이 올랐다면 골목 지하에 자리한 노래방 '풍금'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골목 주위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건물 옥상에는 게스트 하우스 '선무당'이 들어서 있다. 이 곳은 공연을 위해 부산을 찾는 타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숙소로 이용될 예정이다.

문화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총 세 곳. 어느 곳으로 들어서도 이 모든 공간을 만날 수 있다. 또, 문화골목 안의 골목은 나무와 꽃, 토우 등 아기자기한 소품이 진열되어 있어 골목 안 공간과는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인근 골목을 지나다 입구가 예사롭지 않아 '문화골목'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많다. 굳이 어느 곳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친구와 혹은 연인과 함께 도란도란 속삭이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즐겁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골목.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가(文化街)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문의/문화골목(625-0767)



###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부산문화회관, 솔로페라단 공동 제작 베르디 오페라 'AIDA'

**대극장** | 9월 3일-7일 수-일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을 기념, 부산문화회관과 솔로페라단이 의욕적으로 제작한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오페라 '아이다'는 이집트의 무장 라다메스(Radames)와 포로인 에티오피아

의 공주 아이다와의 슬픈 사랑을 다룬 작품으로, 장중하고 화려한 음악과 호화롭고 장대한 무대장치 등 오페라 중에서도 백미로 꼽히는 대작이다.

이번 무대는 유럽 음악계 젊은 지휘의 거장 오타비오 마리노, 유럽정상급 오페라 연출가 안토니오 데 루치아, 금세기 최고의 드라마틱 테너로 이미 400회 이상 라다메스役に 출연한 피에로 줄리아치, 빈 국립극장의 아이다 주역가수 소프라노 록사나 브리만, 러시아 출신으로 유럽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소프라노 이리나 크리쿠노바 등 유럽을 대표하는 성악가들과 한국인 테너 최초로 라 스칼라 극장의 주역으로 데뷔하여 유럽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테너 이정원, 한국을 대표하는 바리톤 고성현 등 최고의 출연진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극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시립예술단이 직접 참여한다.

- 총예술감독/이소영
- 지휘/오타비오 마리노
- 연출/안토니오 데 루치아
- 출연/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정희 발레단, 부산시립극단

#### ▶ 주요출연진

구 분	3일	4일	5일	6일	7일
아이다	록사나 브리만	이리나 크리쿠노바	배수진	이리나 크리쿠노바	록사나 브리만
라다메스	피에로 줄리아치	이정원	김지호	이정원	피에로 줄리아치
암네리스	카티야 리팅	이라리사 데미도바	박소연	이라리사 데미도바	카티야 리팅
아모나스로	고성현	김종화	박대용	고성현	고성현
람피스	안드라스 팔레르디	안균형	김태경	안균형	안드라스 팔레르디
레	김요한	문동환	김정대	김정대	김요한
무녀장	옥혜나	한송이	한송이	한송이	옥혜나

- 관람료 VIP석 150,000원 · R석 130,000원 · S석 100,000원 · A석 80,000원  
B석 50,000원 · C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솔로페라단(1544-9373)

### 청소년 협연의 밤

9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차세대 우리 음악계를 이끌어갈 청소년 유망주들을 위한 협연 무대.

####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트리오 바장조 K242 1악장, 3악장

비에냐프스키/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 3악장

비외탕/바이올린 협주곡 제 5번 가장조 1악장 등 수곡

- 연주/부산교향악단
- 지휘/백진현(마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 연주/김경숙, 백지용, 차혜자, 최세희, 장묘희, 강령경, 박민하, 장혜진, 정연실

관람료 초대

문 의 선기획(758-6410)

### 부산 YMCA오케스트라 제 11회 정기연주회 가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질 때

9월 7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1998년 중고등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음악교육을 위해 창단된 부산 YMCA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 YMCA오케스트라는 2006년 장진 상임지휘자를 영입,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 개발과 함께 방학연습캠프 등을 가지며 단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관람료 무료

문 의 부산 YMCA오케스트라 사무장(010-2558-0817)

### 여가울 25주년 기념 연주회

9월 7일 일요일 오후 7:00 소극장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클래식기타 동아리 여섯가락의 울림이 들려주는 창단 25주년 기념연주회로 4기 졸업생 의사 클래식기타리스트 곽승웅이 특별출연한다.

#### 프로그램

6개 변주곡, 듀오, 로망스 제 1번, 바덴재즈, 왈츠, 부에노스 아이레

스의 사계 중 '겨울' 등 수곡

- 연주/박인호, 황문원, 김수한, 문수미, 김민경, 이원경, 임진희, 허창민, 조영운, 유재광, 구문근, 박누리, 김수현, 표경주, 안상준, 박서화, 염지원

관람료 초대

문 의 박인호(010-2592-7309)



### 2008 부산창작관현악콩쿠르 음악회 및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 음악회

**중극장** 9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1998년 부산과 경남 지역의 교향악단과 대학에 출강하는 젊고 유능한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창단, 그동안 바로크에서부터 현대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여온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 음악회.

독일 Essen Philharmonic Orchestra 악장 토모 켈러와 비올리스트 안네 스투드, 피아니스트 서혜경과의 공연, 뉴욕 Long Island Univ. 교수이며 지휘자인 수잔 디버초청음악회, 아담 코스테스키 초청 음악회 등을 가져온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는 창작관현악의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부산창작관현악콩쿠르를 개최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2008 부산 창작 관·현악 콩쿠르 대상 작품을 초연한다.

#### 프로그램

2008 부산 창작 관·현악 콩쿠르 대상 작품

들리브/발레 모음곡 '코펠리아' 중에서

풀랑/2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 지휘/백진현(신라대학교 교수, 마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 피아노/정년경, 엄덕희
- 특별출연/남성양상블 일 프리모(II Primo)
- 테너/강학윤, 이흥득
- 바리톤/안상철, 하병욱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백진현(999-5265)



### 제 3회 효산가야금연주단 정기연주회

**중극장** 9월 10일 수요일 오후 7:30

강태홍류가야금보존회 산하 단체로 다양한 창작음악을 들려주는 효산가야금연주단의 정기연주회.

1893년 전남 무안에서 창극의 창시자 강용학의 아들로 태어나 생의 대부분을 부산에서 보낸 효산 강태홍 선생이 완성한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장단의 다양한 불임새와 감정절제가 특징으로 현재 부산지방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이번무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을 비롯해 뱃노래, 진도아리랑, 북한의 대표적인 민요 '영천아리랑' 등 민요가락과 아카펠라, 현악 4중주 등이 어우러진 새로운 느낌의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 프로그램

이은경(편곡)/내일로 향하는 문

이수련(편곡)/영천아리랑

박위철(편곡)/가야금과 현악 4중주를 위한 뱃노래

아카펠라와 함께하는 가야금의 향연-옹헤야, The winner takes it all, 새타령 등 수곡

· 연주/최은정, 류경화, 김지영, 김문정, 서희, 김은미, 이지영, 이보은, 이선혜, 고윤이, 공혜영 외

■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 문의 김혜련(017-551-4540)

### 제 37회 독우회 정기연주회

9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독일에서 음악수업을 한 부산의 연주인들로 구성된 독우회의 제 37회 정기연주회로 심경숙, 배희영, 김정강, 이혜승이 연주한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장조 K.448

브람스/헝가리 댄스 제5, 6번

포레/돌리 모음곡 작품 56 등 수곡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김명자의 춤

9월 10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제 97호 살풀이춤 전수교육보조자로 우리 춤의 맥을 이어온 김명자 선생의 춤 무대.

김명자는 우봉 이매방 춤인생 70주년 기념 공연, 우봉 이매방 춤 전수관 개관 기념공연, 진주 논개예술제, 마산 만날재 축제, 이웃사랑 자선공연 등에서 우리 춤사위를 펼쳐왔다.

#### 프로그램

승무, 장검무, 입춤, 초립동, 살풀이

춤, 장구춤, 무당춤

· 특별출연/이매방

· 찬조출연/박성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 춤/김명자, 장해정, 이민아, 이정숙, 김정경, 김주연, 이필호, 김진영, 안주희, 이현주, 김현정, 류호정, 최현경, 권해정 외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문의 김정경(011-9554-6120), 이정숙(019-542-9770)

### 2008 부산음악협회 부산 피아노 그랜드 페스티벌

9월 11일-12일 목-금요일 오후 7:00 대극장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최고의 앙상블을 들려주는 부산 피아노 그랜드 페스티벌.

11일은 백진현이 지휘하는 마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하는 협주곡의 밤, 12일에는 피아니스트 70명이 한 무대에서 6인, 8인, 12인의 편성으로 작은 오케스트라인 웅장한 피아노 선율을 들려준다.

#### ■ 제 1일 마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하는 협주곡의 밤

#####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제 2번  
작품 18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 3번 다단조 작품 37  
그리그/피아노협주곡 가단조 작품 16

· 지휘/백진현(신라대학교 교수,

마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 협연/배수정, 박정현, 임소영, 노경원





###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및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연주회 제 1회 부산국제민족음악축제

**대극장** 9월 23일-25일 화-목요일  
오후 7:30

한국과 중국, 몽고의 민족음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제1회 부산국제민족음악축제. 9월 23일 중국을 대표하는 중국광파민족악단 연주를 시작으로 24일 몽골국립민속관현악단, 25

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민족정서가 담긴 개성 넘치는 무대를 열어준다.

#### ■ 23일 제 1일 중국광파민족악단

중국방송예술단 산하의 한 단체로 120명에 이르는 대규모 악단. '일본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와 같은 제왕의 품격이 느껴진다'는 격찬을 받고 있는 평가봉이 예술총감독을 맡고 있다.

#### 프로그램

조계평/경전서곡

팽수문(편곡)/월아고

오화/아심침

모차르트/아이네 크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스트라우스/피치카토 폴카 등 수곡

· 지휘/평가봉(예술총감독) · 협연/강극미(경호), 후장창(적)

#### ■ 24일 제 2일 몽골국립민속관현악단

1993년 창단된 몽골국립민속관현악단은 그동안 몽골 민족의 문화와 예술을 국내외에 알리고 보급하는데 주력해왔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인 몽골 민속악기 마두금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다.

#### 프로그램

나차도르지/관현악곡 '몽골의 아침'

샤로우/피리협주곡 '열린 초원의 세계', 마두금 협주곡 '마음의 고비(상승고비)'

몽골 민요/남녀의 두마음

잔스도르/몽골인의 희망 등 수곡

· 지휘/박종룡 찬드(상임 지휘자) · 피리/김광복

#### ■ 25일 제 3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984년 5월 창단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전통음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아울러 새 시대에 맞는 창작음악을 개발하여 '해양수도 부산'을 중심으로 폭 넓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프로그램

최성환/창작관현악 '아리랑 환상곡'

황진철/북한 개량단소 협주곡 '서도아리랑'

김계옥(구성), 박위철(편곡)/25현 개량가야금을 위한 '아리랑', 옥류금을 위한 '도라지'

박범훈/소리와 창이 함께 있는 관현악 '아리랑 접속곡'

· 지휘/박호성(수석지휘자)

· 협연/장세철(북한 개량 단소 · 안산시립국악단 대금 차석), 김계옥(25현 가야금, 옥류금 · 중앙대학교 교수), 김혜란(경기민요 · 한국민요연구회 이사장, 우리음악연구회 예술감독), 김보연, 배경화(경기민요), 박성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정선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 ■ 제 2일 그랜드 피아노 페스티벌

#### 프로그램

리스트/교향시 전주곡

베토벤/소나타 작품 57

구노/오페라 '파우스트' 중 '왈츠'

차이코프스키/1812년 서곡 등 수곡

· 연주/김민선, 박유빈, 신문정, 최민경, 안준희, 박주용, 김인미, 김미현, 김정희, 이성희, 이영옥 최태연, 김소형, 홍은아, 서영섭, 최윤정, 최미정, 김은미, 김승환, 박정온, 김지현, 양정은, 정정화 외

관람료 1층 20,000원 · 2층 10,000원(학생, 부산음악협회 회원 50%)

문 의 (사)부산광역시 음악협회(634-1295)

### 양상블 디 마레 창단연주회

9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13명의 현악 주자들이 구성된 '양상블 디 마레'의 창단연주회.

'양상블 디 마레'는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의 음악에 맞추어 한 목소리를 내는 데만 익숙해져 있던 이은옥, 권

남희, 김영주, 민정화(1st 바이올린), 조양희, 강선덕, 최은정(2nd 바이올린), 홍영선, 김상철, 신지현(비올라), 김근아, 서송은(첼로), 박정숙(더블 베이스)이 음악적 팀워크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

#### 프로그램

바흐/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3번 사장조(BWV 1048)

엘가/세레나데 마단조 작품 20

치마로사/플루트와 현을 위한 협주곡 사장조

레스피기/류트를 위한 고풍의 무곡과 아리아 제3번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 의 양상블 디 마레(442-1941)

### 고신대학교 예술대학 기악과 30주년 기념 피아노 연주회

9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고신대학교 기악과 30주년을 기념, 고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신대학교 동문들이 함께 마련하는 무대.

#### 프로그램

쇼팽/화려한 폴로네이즈 작품 22

리스트/헝가리안 랩소디 제 2번 다단조(2piano)

카차투리안/칼의 춤(2 Piano 8hands) 등 수곡

· 연주/고은경(고신대학교 교수), 최현희, 홍지혜, 김지원, 고태욱(고신대학교 외래 교수), 김은실, 이희령(고신대학교 외래 교수), 장진이(고신대학교 외래 교수), 이승윤(부산시립합창단 반주자), 정은아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35주년 기념 제 123회 정기연주회 즐거운 합창 이야기 -로봇 태권 V가 캔디를 만났을 때

**대극장** 9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고전시대를 대표하는 베토벤의 합창조곡과 부모세대의 놀이동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영화음악 등

로 꾸미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즐거운 합창이야기. 오카리나 합주와 바리톤의 독창 무대와 함께 합창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다양한 곡들을 선곡,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합창 무대를 열어준다.

#### 프로그램

베토벤/베토벤의 합창 조곡

전래 동요/두껍아 두껍아(박정규 곡),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얼레리 꼴레리(김청운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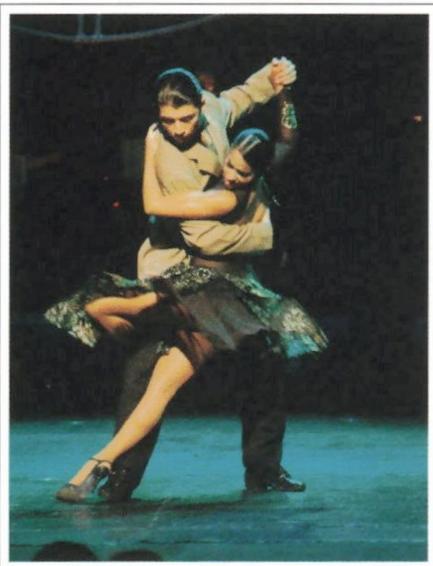
영화음악/ '알라딘' 중 'A Whole New World' '센과치이로의 행방불명' 중 'The Ma', 'Again'

안현순(편곡)/즐거운 합창 -마빡이 송, 로봇 태권 V가 캔디를 만났을 때, 되고 송 등 수곡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자(합창)
- 특별출연/바리톤 서관수, 라온오카리나양상블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 2008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탱고대회

**대극장** 9월 27일-29일 토-월요일

IOC가 공식 후원하는 전통과 미래의 지구촌 스포츠문화올림픽 축제 2008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BUSAN World TreX-Games).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사회체육대회는 문화적 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각국의 전통스포츠를 보여주고 함께 즐기는 세계 전통스포츠 게임페스티벌(World Festival of Traditional

Sports and Games)이다. 세계 100여개국에서 3개 분야 20개 종목이 펼쳐지는 이번 부산대회는 전통 스포츠 경기와 시연 외에도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New 스포츠(e-스포츠, X-스포츠)를 가미하여 전체적으로 전통스포츠문화에 비중을 두면서도 젊은 세대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미래스포츠문화도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개최된다. 탱고는 해외 48개팀, 국내 2개팀이 참가, 심판의 점수판정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참가국/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미국, 이탈리아, 러시아, 헝가리, 스페인,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그리스, 독일, 일본, 홍콩, 한국, 호주, 뉴질랜드

■ 일 정 27일 예선전 14:00~, 28일 준결승 15:00~, 29일 결승전 16:00~

■ 문 의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500-2872)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9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송선혜    정화음    조진선    양지원    김민아    이지현

청소년 유망주들의 등용문으로 오디션을 통과한 청소년 유망주들이 윤상운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가장조 '터키' 작품 219 중 제1악장  
랄로/첼로 협주곡 라단조 중 제1악장 등 수곡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교수)
- 협연/송선혜(바이올린 · 부산예중 2년), 정화음(첼로 · 부산예중 1년), 조진선(피아노, 부산예중 3년), 양지원(바이올린 · 동아대 1년), 김민아(첼로 · 부산예고 2년), 이지현(플루트 · 부산대 2년)

관람료 균일 2,000원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창단연주회

9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인 최정순 교수를 중심으로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 25명으로 결성된 부산예술아카데미의 창단연주회.

#### 프로그램

거시원/쿠바서곡

베토벤/삼중협주곡 작품 56 등 수곡

- 연주/최은주, 구미정, 정자영, 박지나 외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 의 노은주(016-565-9780)

### 김동욱 바이올린 독주회

9월 20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탄탄한 개인기를 바탕으로 한 자연스런 연주로 그만의 팬을 확보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김동욱 바이올린 독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최연소 악장으로 임명되어 오케스트라 활동과 함께 부산의 실내악운동에 큰 관심을 가져온 김동욱은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를 결성하여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 프로그램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생상스/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스 등 수곡

- 피아노/유영옥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 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 2008 부산예술제 가곡과 아리아의 밤

9월 21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을 대표하는 최고의 성악가들이 정겨운 우리가곡과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로 가을의 서정을 노래한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서곡 '피가로의 결혼'  
롯시니/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 중 '이 마을의 제1인자'  
안정준/아리 아리랑  
아르디티/입맞춤 등 수곡  
연주/성정하, 박은미, 황혜숙, 정태미, 허미경, 박미경(이상 소프라노), 성미진(메조소프라노), 엄현섭, 김성진, 김화정, 강학윤, 이철성(이상 테너), 김종화, 안상철, 하병욱(이상 바리톤), 박기범(베이스)  
· 오케스트라/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지휘/백진현)  
관람료 초대  
문의 (사)부산광역시 음악협회(634-1295)



한명희 황성훈 오현정

####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K.448 라장조  
아렌스키/모음곡 제 2번 '실루엣' -학자, 요염한 여자, 도화, 꿈꾸는 사람, 발레리나  
쇼스타코비치/콘체르티노 작품 94  
라흐마니노프/환상조곡 제 1번-뱃노래, 밤과 사랑, 눈물, 부활제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예술협회, 예은예술기획(632-6904)

### 소프라노 신영미 귀국 독창회

9월 21일 일요일 오후 6:30 중극장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로 유학, 오스트리아 Internationale Akademie Universitat Mozarteum Salzburg를 졸업하고 귀국한 소프라노 신영미 독창회.

신영미는 Euro Festival 우수자 선정 연주회, 연세대 동문

음악회, 우크라이나 키예프 국립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로 음악애호가들과 만나왔다. 신영미는 일본 극단 '사계' 단원으로 다수의 뮤지컬 작품 활동을 하기도 했다.

#### 프로그램

카치니/아베마리아  
김동진/신 아리랑  
임금수/강 건너 봄이 오듯  
거쉬윈/포기와 베스 중 'Summer time' 등 수곡  
관람료 초대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010-8368-2445)

### 한연회 초청 특별연주회

9월 22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대학교 한명희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연회와 부산이 낳은 피아노 스타 황성훈, 오현정의 특별무대.

피아니스트 황성훈은 국제 콩쿠르에 33회 입상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각광받는 라이징 스타로 자리매김한 오현정 역시 국제 콩쿠르를 통해 다진 화려한 실력의 소유자이다. 한명희 교수, 오현정, 황성훈이 2piano 4hands로 무대를 열어준다.

38\_예술제의 초대

### 2008 대학합창 페스티벌

9월 23일 화요일, 10월 3일-10월 5일 금-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의 음악계를 이끌어갈 성악도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대학 합창페스티벌' 두 번째 무대.

시민들에게 친숙한 한국가곡과 이태리가곡, 독일가곡, 오페라 아리아, 가요, 동요, 수준 높은 미사곡 등 합창음악의 진수를 선보인다.

#### ■ 참가 단체 및 일정

9월 23일(화) 동아대학교 음악과 합창단  
10월 3일(금) 인제대학교 음악과 합창단  
10월 4일(토) 경성대학교 음악과 합창단  
10월 5일(일) 신라대학교 음악과 합창단  
관람료 초대

문의 (사)부산광역시 음악협회(634-1295)

### 9월 한낮의 유콘서트 스물일곱번째 만남

9월 23일 화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여성 청중들을 위한 한낮의 유콘서트 스물일곱 번째 만남.

이번 무대는 인간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음악, 성악, 판소리, 팼페라, 가요, 뮤지컬 등으로 무대를 꾸민다.

관람료 균일 15,000원(국제신문 구독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 작곡동인 잉태 제 7회 세 남자의 합창이야기

9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함께 음악인생을 가고 있는 송필석, 백승태, 최석태, 권오철 등 젊은 작곡가들의 모임인 작곡동인 잉태가 들려주는 세남자의 합창이야기.

백승태, 최석태, 권오철로 출발한 세 남자의 합창이야기는 매년 부산시립합창단의 연주로 창작 합창곡들을 들려주고 있다.

#### 프로그램

최석태/그대 그리움, 갈보리 사랑  
구영립/시편 107편  
유종호/얽은 것과 얻은 것 등 수곡  
· 작곡/송필석, 백승태, 최석태, 권오철, 이승임, 구영립, 이 옥영, 정일영, 유종호  
· 합창/부산시립합창단(지휘/김강규)  
관람료 일반 12,000원 · 학생 7,000원(사랑티켓 적용)  
문의 최석태(019-623-1547)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30회 정기연주회 러시아의 근대음악

9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솔리스트들의 축제, 여름 음악캠프로 완성도 높은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들려주는 제 30회 정기연주회.

사제지간인 리아도프와 프로코피예프의 음악을 통해 구소련 전후의 음악 양식의 변화와 그 차이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금관5중주의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관람료 균일 2,000원

#### 프로그램

리아도프/오케스트라를 위한 8개의 러시아 민요 작품 58  
프래켈플/금관5중주와 현악을 위한 협주곡  
프로코피예프/발레 모음곡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 64 중 발췌  
· 지휘/이동신  
· 협연/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8)

### 2008 제31회 부산무용예술제

9월 27일 토요일 오후 4:00 중극장

부산지역 무용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가을 펼쳐는 부산무용예술제 2008년 무대.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무용단이 참가한다.

### 프로그램

한국무용단 '비선(飛嬋)' 입춤(국수호류), 진도북춤(박병천류) (안무/윤정미 · 출연/윤정미, 서시영, 정은주, 조현영, 전영란, 왕정희, 김민경)

현대무용단 주-口 '금빛 물고기' (안무/조영미 · 출연/김초솔, 강동석, 박태광, 임선희, 조영미)

새알춤회 '무시무시한 처용의 寬容(관용)' (안무/하선주 · 출연/남선주, 신영지, 송윤경, 이남정, 최혜림, 정은주, 김신희, 김영찬, 장영진)

그랑발레 '소년은 울지 않는다' (안무/이세진 · 출연/정두순, 정미경, 최연순, 정진우, 백찬정, 백순선)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부산무용협회(632-5116)

### 루퍼스 최 피아노 리사이틀

9월 29일 월요일 오후 8:00 중극장



2007년 '클래식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호세 이투르비 국제 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문 우승과 인기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의 언론과 클래식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국계 피아니스트 루퍼스 최의 한국 데뷔 무대.

줄리어드 음대에서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독일의 하노버 음대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수료하며 수많은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라이징 스타 루퍼스 최가 고난이도의 기교와 에너지 넘치는 연주를 들려준다.

### 프로그램

바흐/부조나-샤콘느 라단조

베토벤/ '영웅' 주제에 의한 15번주곡 내림 마장조, 작품 35 차이코프스키/사계 중 '10월'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제 16회 임병원 바이올린 독주회 메시앙 탄생 100주년 기념 '프렌치 로망스'

9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근대 프랑스 작곡가인 메시앙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 프랑스의 후기 낭만과 근대 작품으로 꾸미는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의 열여섯 번째 독주회.

1988년부터 경성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하면서 부산에서



인 민간오케스트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음악 감독을 맡고 있다.

### 프로그램

메시앙/주제와 변주곡

드뷔시/ 바이올린 소나타

프랑크/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

· 피아노/조현선(경성대학교 교수)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문의 경성대학교(620-4918)

임병원(010-8533-4917)

### 피터 야블론스키 피아노독주회

10월 2일 목요일 오후 8:00 대극장



20대의 무서운 신예에서 30대의 젊은 거장으로 거듭난 피아니스트 피터 야블론스키 부산연주회.

6세 때 재즈 드러머로 음악계 입문, 9세에 뉴욕의 유명한 재즈클럽 빌리지 뱅가드에서 '타악기의 거장 버디 리치와 공연할 만큼 빼어난 리듬 감각을 타고났다'는 평을 받은 피터 야블론스키는 취미로 피아노를 시작, 14세 때 피아니스트로서 스웨덴과 덴마크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6세 때 재즈 드러머로 음악계 입문, 9세에 뉴욕의 유명한 재즈클럽 빌리지 뱅가드에서 '타악기의 거장 버디 리치와 공연할 만큼 빼어난 리듬 감각을 타고났다'는 평을 받은 피터 야블론스키는 취미로 피아노를 시작, 14세 때 피아니스트로서 스웨덴과 덴마크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 프로그램

하이든/ 소나타 라장조

그리그/피아노 소나타 마단조 작품 7

쇼팽/마주르카 올림다장조 작품 24 II, 마주르카 가단조 작

6세 때 재즈 드러머로 음악계 입문, 9세에 뉴욕의 유명한 재즈클럽 빌리지 뱅가드에서 '타악기의 거장 버디 리치와 공연할 만큼 빼어난 리듬 감각을 타고났다'는 평을 받은 피터 야블론스키는 취미로 피아노를 시작, 14세 때 피아니스트로서 스웨덴과 덴마크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품 17IV, 소나타 p 2번 내림나단조 작품 35, 스케르쑤 제1번

관람료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 · B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 이명진 첼로 리사이틀

10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동아대학교 교수로, 화음 챔버오케스트라와 실내악단 화음의 멤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명진 첼로 리사이틀.

세계적인 첼리스트 나탈리아 구트만의 동양 최초의 제자인 이명진은 독일 에센 국립대학에서 현악과 최초로 최고 성

적을 기록, 화제를 모은 바 있다.

### 프로그램

쇼팽/녹턴, 왈츠,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서주와 화려한 폴로 네이즈 작품 3 다장조 등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청소년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

10월 4일 토요일 오후 4:00, 7:00

10월 5일 일요일 오후 3:00, 6:00 대극장

23살 시골학교에 부임한 총각 선생님과 18살 늦각이 초등학생의 두근두근 로맨스를 그린 로맨틱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 부산무대.

· 극작/이희준 · 작곡/김문정, 최주명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 B석 44,000원

문의 이인복(017-401-5944)

www.wendl-lung.co.kr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The early years

### 시민회관

#### 고신의대 관현악단 제 13회 정기연주회

9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1993년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졸업생들로 결성된 고신의대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 지휘/황장수

관람료 초대

문 의 윤기운 단장(010-2319-3117)

#### 한화와 함께 찾아가는 음악회 금난새와 유라시안필의 新世界

9월 5일 금요일 오후 7:00 대극장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와 문화소외계층에게 수준높은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한화그룹이 2004년부터 펼쳐온 한화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금난새가 이끄는 유라시안필이 출연해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과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들려준다.

관람료 초대

문 의 (주)웨이브미디어(02-716-3316)



이생강

#### 국립부산국악원 개원기념 전국국악경연대회 제 15회 부산국악대전

9월 6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신인국악인의 발굴 및 국악의 전승보급을 위해 매년 마련되는 제 15회 부산국악대전과 10월 개원을 앞둔 국립부산국악원 개원을 기념해 열리는 축하무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인 이생강 명인을 비롯 박대성, 송순섭, 강정열, 김은경 등 명인 명창들이 출연해 국악과 전통춤을 선보인다.

· 출연/이생강, 정화영, 박대성, 송순섭, 강정열, 김은경, 예림어린이가야금병창단

관람료 무료

문 의 부산국악협회(644-5211)

#### 이미자 효 콘서트

9월 20일 토요일 오후 2:00, 5:00 대극장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문 의 (주)하늘소리(1566-2505)



#### 2008 부산예술제 및 문화의 달 기념공연 극단 맥 환생신화

9월 23일-25일 화-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2008 전국연극제에서 부산대표로 출전해 금상을 수상한 극단 맥의 '환생신화'.

노환으로 누워있는 어미를 두고 재산다툼만 일삼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통연희극으로 풀어냈다.

· 작, 연출/이정남

· 출연/이혜영, 김학준, 진선미, 허정현, 권은하 외

관람료 균일 15,000원(청소년 예매시 8,000원)

문 의 극단 맥(625-2117)



#### 뮤지컬 캣츠 오리지널 내한공연

9월 27일(토)-10월 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8:00, 일요일 오후 2:00,  
7:00 대극장

화려한 무대와 환상적인 안무, 아름다운 노래로 지난해 총 20만 7천명의 관객이 관람, 최다관객을 동원했던 뮤지컬 '캣츠'가 한국 투어 마지막으로 갖는 부산무대.

· 작곡/앤드루 로이드 웨버

· 연출/트레버 넌 · 안무/질리안 린

관람료 VIP 130,000원 · R석 110,000원  
S석 80,000원 · A석 60,000원  
B석 40,000원(주말 낮 공연은 VIP 130,000원  
R석 110,000원 · S석 80,000원  
A석 60,000원 · B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주)AN시티(1644-4484)

#### 2008 부산예술제 및 문화의 달 기념공연 부산연극협회 합동공연 '월장(越牆)'

9월 27일 토요일 오후 7:00, 28일 일요일 오후  
3:00, 6:30 소극장

동성애라는 소재를 통해 각자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통념적인 벽을 재치있게 그려낸 창작극.

· 작/이미정 · 연출/김지용

· 출연/백길성, 최성희, 강태욱, 장민, 김혜정 외

관람료 균일 15,000원(19세 이상 관람가)

문 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 금정문화회관

#### 제 18회 주목받는 부산의 차세대 신인음악회

9월 1일 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부산출신의 주목받는 차세대 연주자들이 펼치는 신인음악회.

· 출연/신영미(소프라노), 이유현(피아노), 강경원(바리톤), 이지화(바이올린), 최은영(피아노), 한송이(소프라노)

#### 음악을 사랑하고 연주자의 꿈을 키워주는 콩쿨

[부산대학교 문화콘텐츠개발원과 글로벌아트홀이 공동 주최하는 제6회 글로벌 전국 음악 콩쿨]

콩쿨 일정 및 부문	10월 11일/성악	10월 18일/피아노	시상 대상 (부산대총장상)
	10월 25일/관현악 실내악	11월 1일/실용음악 작곡 국악	최우수상
	11월 6일/우수입상자연주회(CD DVD 음반제작)		(부산대문화콘텐츠개발원장상, 글로벌아트홀관장상)



GloVil Art Hall

장소 : 국제수준 어쿠스틱음향 글로벌아트홀(부산시 동래구 온천 3동 1243-21 지하철 3호선 미남역 1번 출구)  
접수 : http://www.glovil.org에서 다운로드 후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접수 전화접수  
전화 : 051-505-5995/051-504-5994  
인터넷접수 : glovil@paran.com

관람료 1층 20,000원 · 2층 10,000원  
문 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 늙은 부부 이야기

9월 3일-4일 수-목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동두천의 바람둥이 노신사 박동문과 욕쟁이 할머니 이점순의 황혼의 사랑을 통해 첫사랑보다 아름다운 마지막 사랑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

탤런트 정중준, 사미자가 늙은 부부로 출연해 앙상블 연기를 선보인다.

관람료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문 의 금정문화회관(519-5651~2)



부산트롬본앙상블

###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 ■3일 배지현 & 장예진 듀오 콘서트

피아니스트 배지현과 플루티스트 장예진이 함께하는 듀오 콘서트.

#### ■10일 제 2회 부산트롬본앙상블 정기연주회

2000년 10월 부산시립교향악단 트롬본 수석인 정선화를 주축으로 창단한 부산 유일의 트롬본앙상블인 부산트롬본앙상블 정기연주회.

- 리더&지휘/정선화
- 협연/권외석(마산시립교향악단 단원)

#### ■17일 트리오 디에시스 연주회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수석인 바이올리니스트 윤여진과 첼리스트 하세영, 피아니스트 이태희로 구성된 트리오 디에시스 연주회.

#### ■24일 정소영 피아노 독주회

독일 쾰른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수석졸업하고 현재 민한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밟고 있는 피아니스트 정소영 독주회.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 일파가야금합주단 제 11회 정기연주회

9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지난 1996년 가야금연주자 장해숙을 주축으로 전통음악의 계승과 창작에 힘쓰고 있는 일파가야금합주단의 11번째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향제출품류 중 '계면가락도드리, 양청도드리' 조익래(편곡)/파반느, 헝가리무곡 김선/25현가야금을 위한 변주곡 '한오백년' 등 수곡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한하경(010-4174-1538)

### 국악체험 놀이극 호랑이를 만난 놀부

9월 5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단체공연),  
6일-7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소공연장

전래동화에 판소리, 민요, 탈춤을 접목시켜 어린이들이 국악과 친해질 수 있도록 구성한 국악체험 놀이극.

관람료 균일 12,000원(예매시 2,000원 할인)  
문 의 DUBU기획(02-2654-6854)

### 부산예술고등학교 2008 동문무용제

9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문들이 마련하는 2008 동문무용제로 우리 전통무용과 현대무용, 발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관람료 초대  
문 의 예술기획(0505-700-9798)



### 오윤주 피아노 독주회 오윤주의 프렐류드

9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인제대학교 교수이자 금호아트홀 챔버 뮤직소사이어티 창단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오윤주는 이번 무대에서 드뷔시의 '12개의 프렐류드'와 쇼팽의 '24개의 프렐류드'를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 의 클래식 프로인트(02-3141-5729)

### 대학 플루트음악축제

9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부산지역 대학에서 플루트를 전공하고 있는 차세대 플루티스트들이 마련하는 플루트음악축제.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이하룡(011-9535-0421)



### 현대무용단 자유 정기공연

9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생과 재학생들로 결성된 현대무용단 자유는 그동안 부산대학교 교정과 해운대바닷가 등 야외공연을 통해 자연과 인간사회를 소통하는 다

<p><b>책사랑 53년 대형서점</b> 지하1~5층 엘리베이터연행</p> <p><b>전국최고 종합지도(지구본)센터 (과장광고 아님)</b></p> <p>국산 지구본 최상품만 취급/외국산 지구본 최상품취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 산 : 소·중·대·초대형, 위성, 지세, 행정 다양함 20%할인</li> <li>▶ 외국산 : 세계적 매출 독일 스텔라노바 소·중·대 초대형</li> </ul> <p>공중부양, 드고, 돌고, 한·영지명 출시중 색상불변 선물용최고</p> <p><b>지도의 모든것! 종류가 많아서 일부만 안내합니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시, 도별지도 전국교통관광지도, 국내, 외국관광책자</li> <li>▶ 전국전자지도 PC로 지적, 지번, 도면 확대 축소 연결지우</li> <li>▶ 경매, 부동산, 건설 설계, 시공, 통신, 유통, 택배,</li> <li>▶ 금융기관, 업무용, 기타 각종업체 정보발행지도판매</li> <li>▶ 지형도 당지도센터 취급의 1:3000지도를 연결코팅</li> <li>▶ 부동산업계, 기타, 회사, 사용용도에 따라 소중, 대형코팅</li> </ul> <p>대형지도, 지구본 매장 관람을 환영</p>	<p><b>새 소식!</b></p> <p>문우당서점 지도센터에서</p> <p>세계지도계 초유</p> <p><b>한국발명특허획득</b></p> <p>*국기 있는 지도(특허품), 국기 없는 지도(2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li> <li>· 일반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li> <li>· 대형, 코팅 벽걸이용 세계지도(사무실, 학교)</li> <li>· 일반형코팅벽걸이용 세계지도(학교, 가정)</li> </ul> <p>★ 학생, 일반공용케이스 / 날장지도(값 5,000원)</p>	<p>since  1955</p> <p><b>문우당</b></p> <p>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p> <p><b>문우당서점</b></p> <p>Tel: 245-3843(대표) 245-2714(공연문의)</p> <p>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지탑 앞 <b>(미니몰 건너편)</b></p> <p><b>각종 공연에 매처</b></p> <p>CGV10% 적립 통도원타지아 경주월드 할인 판매처</p>
---	--	--

양한 작품세계를 펼쳐왔다.

### 작품

Where is my shoes?(안무/정진우)  
그녀의 방-Masturbate(안무, 출연/박근영)  
유쾌증(Jollyism)(안무/문은아)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문의 정문경(010-7182-1036)

### 김세희 피아노 독주회

9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미국 줄리어드음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로얄콘서바토리 연주자 최고과정을 수료한 피아니스트 김세희 독주회.

관람료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구지연의 춤 '가온길'

9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전통무용과에 재학중이며 연무용단 단원, 풍물굿패 소리걸 사무장으로 있는 구지연의 춤.

· 찬조출연/김인수(풍물굿패 소리걸), 연무용단  
관람료 초대  
문의 구지연(010-2643-5569)



### 예타래와 함께하는 우리음악 느끼기

9월 21일 일요일 오후 3:30, 6:00 대공연장

우리 전통음악에 뿌리를 두고 새로운 음악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퓨전시나위 예타래의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

· 출연/조익래(색소폰), 정세운(피아노), 허인대(장구), 이갑석(플루트), 류성식(피리), 최지환(대금), 정학선(첼로), 조위현(해금), 박은정(가야금), 김지혜(소리)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최지환(011-594-9124)



백재진

### 슈만 전곡 시리즈 -백재진&정성흡 듀오의 만남

9월 22일 월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현재 비루투오조 앙상블 리더,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과 앙상블 아이리스 인 부산 단원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정성흡이 함께하는 듀오무대.

**프로그램**  
슈만/세 개의 소품  
라흐마니노프/바이올린 소나타 제 1번, 제 2번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부산신포니에타 제 63회 정기연주회

9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한양대학교 김의명 교수의 지휘와 바이올린 협연으로 마련되는 부산신포니에타 제 63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헨델/콘체르토 그로스 작품 6  
모차르트/바이올린협주곡 제 5번 가단조

차이코프스키/세레나데 등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문의 김영희(011-9519-0448)



### Breathing of Piano & I 안준희 귀국 피아노 독주회

9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프랑스 에콜 노르말 고등음악원과 말메종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안정되고 섬세한 테크닉의 연주자로 평가받아온 피아니스트 안준희 귀국 독주회.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클래식 프로인트(02-3141-5729)



### 주창근 작곡 발표회

9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독일 트로싱겐 국립음대, 스위스 바젤음대 전자음악 작곡 최고과정을 졸업한 작곡가 주창근 작곡발표회.

관람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브라부라색소폰앙상블

### 2008년 부산생활음악축제

9월 27일-28일 토-일요일 오후 5:00 대공연장

전문연주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직접 연주자로 참여하는 2008년 부산생활음악축제.

**YAMAHA** 야마하 공식 A/S점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감동 · 함께 · 만드느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동래 메가마트 : 051) 582-0808
- 남천 메가마트 : 051) 622-0815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 27일 출연팀/해운대여중어머니합창단, 브라부라 색소폰 앙상블, 대맑은소리, 부산통기타리스트앙상블
- 28일 출연팀/성우원합주부, 휴피리, 대울림,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노래야 나오너라

관람료 초대

문의 이갑석(017-551-0623)

### 바리톤 강경원 귀국독창회

9월 28일 일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한 바리톤 강경원 독창회.

이번 무대에서는 말러의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 전곡과 슈베르트 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강경원(010-5129-4321)

## 해운대 문화회관

### 부산연극협회 창작극 월장(越牆)

9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동성애라는 사회통념적인 벽을 경쾌하면서도 재치있게 그려낸 퓨전사극.

관람료 균일 10,000원(19세 이상 관람가, 해운대 문화회관 회원 1,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신라윈드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9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재학생들과 졸업생 45명으로 결성된 신라윈드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 지휘/백진현(신라대학교 교수)

· 협연/양진일(마림바), 지은이, 정한나(이상 플루트)

관람료 무료

문의 양진일(010-2889-8764)

## 을숙도 문화회관

### 2008 부산청소년플루트음악축제

9월 6일 토요일 오후 5:00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으로 플루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시내 초등학교 학생 100여명이 참여하는 2008 부산청소년플루트음악축제.

· 특별출연/소리테플루트앙상블

관람료 무료

문의 이경희(011-588-7824)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1회 정기연주회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생태음악회Ⅲ 상생 2008

9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생태음악회 세 번째 무대로, 자연을 소재로 한 다양한 창작곡을 아름다운 국악선율로 들려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1회 정기연주회.

· 지휘/박호성(수석지휘자)

· 협연/이명일(25현 가야금), 엄애리(거문고), 박성희, 정선희(노래)

관람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 토요뮤직점프-두드리는 악기이야기

9월 27일 토요일 오전 11:00 소공연장

다양한 타악연주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두드리는 악기이야기'.

· 사회 및 해설/이선영

· 연주/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 타악앙상블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341~3)

## 김해문화의전당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순회연주회 Youth Orchestra Festival 2008 -해설이 있는 젊음의 교향악 축제

9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마루홀



지역 청소년교향악단의 교류연주를 통한 청소년교향악단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Youth Orchestra Festival 2008'의 시작을 알리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연주회.

9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첫 무대를 여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외 김해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청소년교향악단, 과천시립아카데미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선다.

프로그램

리아도프/오케스트라를 위한 8개의 러시아 민요 작품 58  
프래켄펠/금관5중주와 현악을 위한 협주곡  
프로코피에프/발레 모음곡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 64  
중 발췌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김해문화의전당(055-320-1234)

## KBS 부산홀

### SG워너비 5집 발매기념 전국투어 콘서트-부산

9월 6일 토요일 오후 4:00, 8:00

관람료 R+CD석 99,000원 · R석 88,000원  
S석 77,000원 · A석 66,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유니스크컴퍼니(1588-8477)

### 데뷔 40주년 기념 남진 리사이틀

9월 15일 월요일 오후 3:00, 6:00

관람료 VIP 77,000원 · R석 66,000원  
S석 55,000원 · A석 44,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 신영옥&금난새&유라시안 필 콘서트

9월 20일 토요일 오후 7:30



신선한 발상과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로 대중과 함께 해온 지휘자 금난새가 이끄는 유라시안 필과 우아하면서도 섬세한 목소리로 사랑받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관람료 VIP 100,000원 · R석 80,000원  
S석 60,000원 · A석 40,000원  
문의 (주)에스알컴퍼니(1644-4533)

### 앤디 라이브 콘서트

9월 21일 일요일 오후 6:00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 B석 44,000원  
문의 블루엔터테인먼트(1566-1774)

### 알렉스 첫 번째 콘서트

9월 27일 토요일 오후 7:00

28일 일요일 오후 5:00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544-4484)

## 글로벌아트홀



### First Date 문귀봉 첼로 독주회

9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동백음악콩쿠르, 부산음악협회콩쿠르, 창원 YWCA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첼리스트 문귀봉 독주회.  
관람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차세대 첼리스트 강진원 첼로 독주회

9월 27일 토요일 오후 7:30

부산예고 3학년으로, 울산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중인 강진원 첼로 독주회.  
관람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제 9회 지역 주민과 부산 시민을 위한 행복음악회

9월 28일 일요일 오후 7:00

글로벌아트홀이 부산 시민의 문화저변 확대를 위해 매달 마지막 일요일에 마련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 해설/신영순(작곡가, 음악학박사)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가톨릭센터

### PBC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 ■2일 피아니스트 최지원 독주회

동아대학교 기악과와 미국 북일리노이 주립대학교 대학원(M.M), 연주자과정(Performer's Certificate)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최지원 독주회.

#### ■9일 부산클라리넷과르텟 'Libertango'

1996년 엘랑클라리넷사중주단으로 창단, 2001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어 활동하고 있는 부산클라리넷과르텟 연주회.

· 연주/김태훈, 권병옥, 박아름, 이성관  
· 특별출연/이천우(부산색소폰콰이어 음악감독)

#### ■16일 소프라노 김지현 독창회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와 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가톨릭음악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김지현 독창회.

· 특별출연/정지윤(플루트) · 피아노/홍지혜

#### ■23일 꿈유빌로 합창단 '아카펠라에 의한 폴리포니'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성악전공교실과 각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한 성악인 21명으로 구성된 꿈유빌로 합창단이 다성음악인 폴리포니아를 주요곡으로 무반주합창으로 들려준다.

#### ■30일 국악실내악단 살티 '국악의 향연'

가톨릭 국악인들로 결성된 국악실내악단 살티는 1997년 8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초청연주회를 통해 전례음악의 토착화에 앞장서 왔다.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가톨릭센터(462-1870)

## 부산의 소극장

### 룸넘버 13

8월 7일(목)~9월 25일(목) 평일 저녁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9/16일 공연없음)  
멀티미디어 소극장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총재의 비서가 스캔들이 나면서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과 기막힌 반전을 통해 웃음을 주는 코미디극.

· 작/레이쿠니 · 연출/양혁철  
· 출연/송영재, 최귀화, 권오을, 문현진, 조윤정 외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작은무대(1544-3164, www.coeni.com)

### 코믹발랄 뮤지컬 해피소드

8월 8일(금)~9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Red

뮤지컬 '루나틱'의 원작 '굿닥터'의 희극작가 닐 사이먼의 작품으로, 독특한 캐릭터들이 펼치는 다섯가지 에피소드들이 유쾌한 웃음을 전달한다.

관람료 균일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 극단 누리에 임대아파트

8월 21일(목)~9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  
(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소극장

삶의 애환이 베어있는 임대아파트를 배경으로, 청춘의 사랑과 우정을 통해 일상과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

· 작/김한길 · 연출/강성우  
· 출연/배진만, 김학준, 강봉금, 염지선, 최현경, 허정현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극단 누리예(621-3573)



### 뮤지컬 여자는 다 그래

8월 22일(금)-9월 2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9/13일-14일 공연없음, 9/15일 오후  
3:00, 6:00) 가마골소극장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의 극적, 음악적 모  
티브에 근거해, 재기발랄한 21세기 젊은이들의 사랑과  
삶의 성장을 주제로 한 로맨틱 코메디 뮤지컬.  
· 각색/이채경 · 연출/남미정  
관람료 균일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 극단 아센 과부들의 축제

8월 29일(금)-9월 28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일 · 공휴일 오후 3:00(월요일,  
9/13일~9/15일 공연없음) 미리내소극장

남편과 사별한 20년지기 친구 세 여인의 일상에 끼  
여든 한 남자와 그를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세 여인의  
삶과 사랑을 그린 블랙코미디극.  
· 작/이반 멘첼 · 각색, 연출/호민  
· 출연/구민주, 황자미, 김희지, 호민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 의 미리내소극장(504-2544)

### 빛이 아늑한 방

9월 1일-7일 월-일요일 오후 8:00 연극놀이터 씬



콘크리트 바닥에 묻힌 고향을 기억에 묻고 사는 한  
여자와 숨막히는 자본주의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줄거리로, 실제 부부이기도 한 백  
대현, 홍승이 두 배우의 일상과 허구, 그리고 무대와 객  
석이 뒤섞여 파장을 일으키는 즉흥극.  
· 구성 및 연출/길 알론  
· 작/길 알론, 백대현, 홍승이 공동창작  
관람료 무료  
문 의 홍승이(518-1375, 011-3418-2206)

###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뮤지컬 '의원놈 도둑님'

9월 9일(화)-2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5:00 용천지랄 소극장

의원역을 맡은 연극배우를 진짜 의원으로 착각한 도  
둑과 가짜의원이 펼치는 황당한 헤프닝 뮤지컬.  
· 연출/김승일  
· 출연/배진만, 유재명, 엄창완, 윤성빈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사랑티켓  
참가작, 예매시 3,000원 할인)  
문 의 극단 바문사(242-8198)



### 극단 시나위 그 섬에서의 생존방식

9월 17일(수)-10월 18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일 · 공휴일 오후 4:00  
열린소극장

2008년 한국일본 신춘문예 희곡당선작으로, 웃지못  
할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기발한 아이디어와 절제된 신  
체적 표현으로 그려낸 창작극.  
· 작/김지용 · 연출/오정국  
· 출연/김현진, 박근태, 반필우, 양진철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극단 시나위(554-5244)

### 그대를 사랑합니다

9월 20일 토요일 오후 4:00, 8:00, 21일  
일요일 오후 3:00, 7:00 동아대학교 석당홀

네티즌을 감동시킨 강풀의 동명만화를 원작으로, 노  
년의 삶과 사랑을 감동과 웃음으로 그려낸 연극 '그대  
를 사랑합니다'.  
중견배우 강태기, 연운경 등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  
절제된 연기를 선보인다.  
· 각색/오은희 · 연출/위성신  
관람료 R석 44,000원 · S석 33,000원(부산시립예술  
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주)AN시티(1644-4484)



### 하연화의 춤

####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우리 춤

9월 20일 토요일 오후 3:00, 6:00  
민주공원 소극장

우리의 전통춤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우리춤 공연.  
· 출연/하연화, 박성호, 김민경, 조은정, 김경아, 김동희,  
김선현, 박지언, 박애리, 장하나, 황경아, 남산놀  
이마당  
관람료 일반 15,000원 · 중고생 10,000원  
문 의 경성대학교 무용학과(620-4964)

## 시네마테크부산

### 오즈 야스지로 회고전

9월 2일(화)-21일(일) 상영시간 홈페이지 참조

일본영화사의 위대한 거장으로 꼽히는 오즈 야스지로  
회고전으로 초기결작 '태어나기는 했지만'에서 유작  
'공치의 맛'에 이르기까지 오즈 감독의 독창적인 영화  
미학을 느낄 수 있는 대표작 17편과 빔 벤더스의 헌정  
영화 '도쿄가'가 상영된다.  
관람료 균일 4,000원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cinema.piff.org)

### 행사

#### 제 10회 2008 대학무용제 심포지엄 21세기 새로운 문화지형과 춤예술의 향방

9월 24일 수요일 오후 3:00

부산예술대학 세미나실

문의 부산예술대학 실용무용과(627-7992)

#### 2008 제 4회 세계사회체육대회

9월 26일(금)-9월 29일(월)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각국의 전통스포츠를 보여주고 함께 즐기는 지구촌 스포츠문화올림픽축제로, 세계 100여개국 전통 스포츠 경기 및 시연과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높은 e-스포츠, X-스포츠가 펼쳐진다.

문의 (재)세계사회체육대회 조직위원회(500-2835, www.trexgames2008.org)

### 전시

#### ‘인(人)형(形)’展

7월 15일(화)-10월 5일(일) 용두산미술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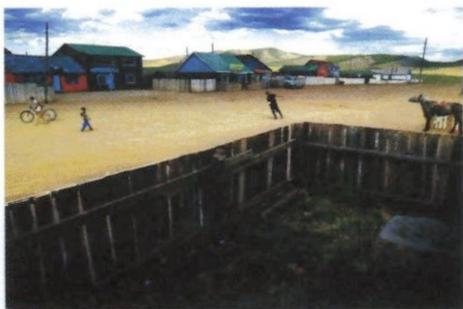
문의 용두산미술전시관(244-4228)

#### 부산근대역사관 건국 60주년 기념사진전 시련과 전진

-대한민국 60년, 역동의 순간들-

8월 1일(금)-9월 30일(화) 부산근대역사관

문의 부산근대역사관(253-3846)



#### 김홍희 사진전-두개의 세계, 하나의 길

8월 9일(토)-9월 28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 송현호 초대전

8월 21일(목)-9월 4일(목) 김재선갤러리

문의 김재선갤러리(731-5437)

#### 박현숙 초대전

8월 26일(화)-9월 4일(목) 부산아트센터

문의 부산아트센터(461-4558)

#### 2008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2008 Artist-in-Residence, OPEN TO YOU!

8월 29일(금)-9월 25일(목) 오픈스페이스 배

문의 오픈스페이스 배(724-5201)

#### 2008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불가능한 낭비展

8월 29일(금)-10월 31일(금) 대안공간 반디

문의 대안공간 반디(756-3313)



#### side-박은봉, 박재오 2인전

9월 2일(화)-9월 7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 싱단웬-The City Fairy

9월 4일(목)-10월 5일(일) 갤러리 더 스페이스

문의 갤러리 더 스페이스(742-7799)

#### 2008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미술은 살아있다展

9월 5일(금)-9월 19일(금)

부산광역시청 1, 2, 3전시실

문의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사무국

(888-6691~8)

#### 2008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갤러리 페스티벌

9월 5일(금)-9월 20일(토)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 2008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갤러리 페스티벌 신현대·이선종 초대전

9월 5일(금)-9월 27일(토) 갤러리 예가

문의 갤러리 예가(624-0933)

#### 한원오 사진전 ‘병원’

9월 9일(화)-9월 21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 2008 부산예술제 사진작가협회 회원전

9월 19일(금)-9월 23일(화) 시민회관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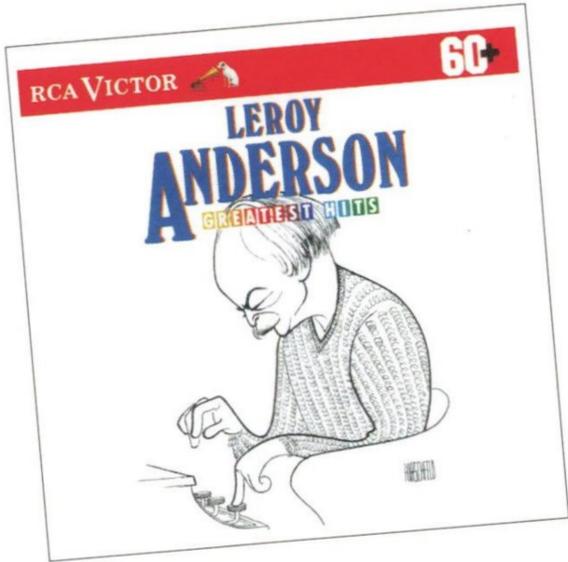
문의 부산예술 사진작가협회(631-4111)



#### 김용달 초대전

9월 24일(수)-10월 4일(토)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 Leroy Anderson(르로이 앤더슨) 관련악곡 모음

· 지휘/휘틀러, 연주/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 (RCA)

지겹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이제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가을이 다가왔다. 이 가을에는 우수에 젖은 브람스의 음악이나 지독하리만치 낭만적인 라흐마니노프가 어울리겠지만 조금은 가벼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가을을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대중적인 성격의 가벼운 관현악 음악을 듣고 싶다면 당연히 르로이 앤더슨의 음악일 것이다. 1908년에 미국에서 태어나 1975년에 세상을 떠난 앤더슨.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였고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편곡자였으며 자작 관현악을 발표하여 많은 사랑을 얻었는데 보통 그의 음악은 3분을 넘지 않는 짧은 곡이지만 파퓰러한 선율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오늘 소개하는 음반은 앤더슨의 작품들 중 특히 유명한 곡들을 모은 음반으로 그가 편곡을 제공했던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와 이 악단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명장 아서 휘틀러의 지휘라 더욱 의미 있는 음반이다.

약 64분가량의 CD에 21곡이 담겨있는 이 음반은 유명한 <피들 패들>로 시작한다. 하찮은 일로 법석댄다는 의미의 <피들 패들>은 미국 컨트리 음악에서 사용되는 바이올린을 일컫는 '피들'이라는 용어와 중의적으로 사용되어 시종일관 바이올린이 부산하게 움직인다.

빠르고 경쾌해서 순식간에 곡은 끝나고 <블루 탕고>라는 우아한 탕고음

악이 이어지고 나면 유명한 <썰매타기 Sleigh Ride>가 우리 귀를 즐겁게 한다. 방울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이곡은 중간에 채찍 소리와 더불어 신나고 행복한 겨울을 생각나게 하는 멋진 음악이다.

포근하고 감미로운 트럼펫 솔로를 들을 수 있는 <나팔수의 자장가>, 왈츠풍의 음악에 야옹하는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듯한 <춤추는 고양이>의 마지막에 나오는 실제 개 짖는 소리와 고양이가 도망가는 듯한 부분에선 절로 미소가 입가에 번진다.

실제 타이프라이터를 타악기처럼 사용하여 재즈풍으로 작곡한 <타이프라이터>, 우드 블록이라는 타악기를 사용하여 시계의 똑딱거림을 묘사한 <고장난 시계>, 3명의 트럼펫 주자가 경쟁하듯이, 때로는 화합하면서 신나고 즐거운 휴일의 모습을 들려주는 <나팔수의 휴일>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이 음반에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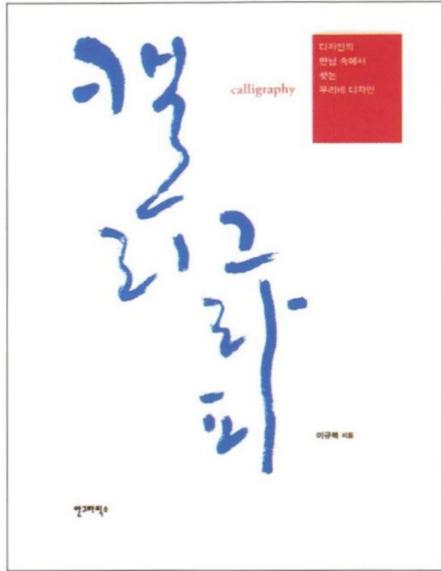
휘틀러와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는 음악이 가지는 즐거움을 남김없이 표출하고 있어 앤더슨의 음반중 가장 돋보이는 음원이 아닐까 한다.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거나 아직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음반이라는 생각이 든다.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해지는 또 하나의 소중한 애칭음반이다.

### 부산문화회관 전화번호 변경 안내

부산광역시 민원전화가 120 민원 콜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부산문화회관 대표전화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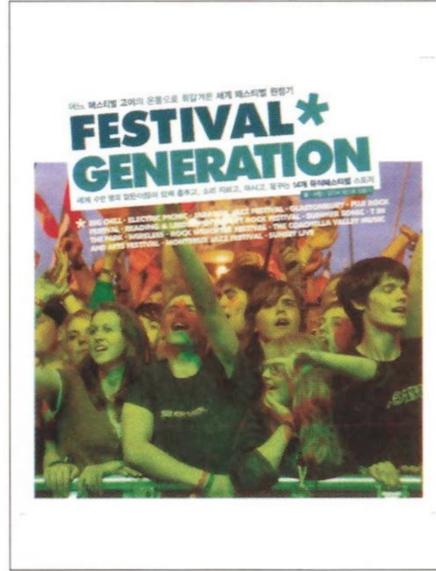
- |                        |                            |                         |                          |
|------------------------|----------------------------|-------------------------|--------------------------|
| ■ 부서별 주요 전화            | · 기획 공연, 찾아가는 예술단 등 예술단 관련 |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       | · 부산시립합창단 607-6126~7     |
| · 대관 및 시설 이용           | · 공연과 공연담당(607-6041~8)     | · 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 부산시립무용단 607-6118, 6120 |
| · 공연과 운영담당(607-6051~5) | · 무대 사용 협의                 | · 예술예의 초대 관련 607-6077~8 | · 부산시립극단 607-6136~8      |
|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 공연과 무대담당(607-6061~3)     |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6101~4   |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6108   |
| · 공연과 공연담당(607-6047)   |                            |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6110   |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6131   |



## 캘리그래피

- 이규복 지음
- 안그래픽스
- 243p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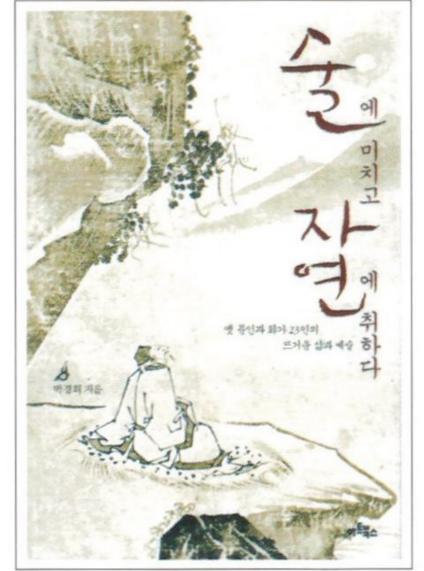
옛 조상들이 허리를 곧추세우고 경건한 마음으로 먹을 갈아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 법을 익히는 것은, 학문을 배우는 자로서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수련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렇게 손으로 쓴 글씨에는 그 사람의 학식과 지혜, 그리고 마음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우리는 PC가 보편화되면서 웬만한 문서와 학생들의 과제가 한글문서로 작성 제출되고, 연인에게 보내는 떨리는 사랑의 말도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메일로 전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받으면 감동하는 사람도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변을 다시 살펴보자. 한동안 명조체, 고딕체 등 각종 활자체가 영상매체와 인쇄매체를 지배하는가 싶더니 손으로 쓴 느낌의 글자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니, 오히려 손글씨를 내세워 고객과 사용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이 대세이다. 캘리그래피(Calligraphy)는 글씨나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로, 디지털 활자 대신 붓을 잡고 손으로 쓴 글씨를 디자인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보는 POP와는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한 획 한 획에 마음을 담아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표현하는 캘리그래피의 멋을 알아보자.



## FESTIVAL GENERATION

- 김지숙 외 글·사진
- 브이북
- 240p
- 15,000원

올림픽과 월드컵에 보내는 지구촌의 관심은 열광 그 자체이다. 평범한 일상과 각박한 비즈니스 사이를 오가며 휴식과 경쟁을 거듭하며 살 수는 없는 일. 이렇게 가끔씩 어디엔가 열정을 쏟아 부어야 숨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페스티벌. 그 신나는 축제를 직접 참여해보자. 용기와 열정으로 가득 찬 세 명의 개성 강한 저자들이 직접 체험한 세계의 페스티벌 이야기를 담았다. 단순히 한 번의 페스티벌 참여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각국의 페스티벌이 가진 매력과 그 축제를 즐기는 다양한 사람들과 그 속의 문화, 페스티벌에 대한 모든 이해와 최고의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정보까지 빠짐없이 다루었다. 김지숙, 맹성호, 김흥기 세 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작업한 이 책은 크게 전 세계 페스티벌에 대한 리뷰,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페스티벌에 대한 단상이랄 수 있는 아젠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재미를 엿볼 수 있는 리포트로 구성되어 있다. 페스티벌을 모르는 사람에게 꼭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축제로의 가이드라인을, 이미 매년 축제를 함께해오던 이들에게는 함께 공유해 볼 수 있는 추억의 경험담을 들려준다.



## 술에 미치고 자연에 취하다

- 박경희 지음
- 아트북스
- 271p
- 12,000원

세상의 이목이나 평가보다 자신의 창작세계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예술가이다. 술을 벗삼고 자연을 즐긴, 옛 문인과 화가들을 소개한 책에서 그들의 광기와 예술혼을 만나보자. 예술가들이 술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향이다. 하지만 특히 동양의 예술가들이 공유했던 자연관은 삶과 예술, 심지어 역사에까지 깊이 관여했다. 그래서 이 책은 동양, 그 중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예술가를 다룬다. 한국에서는 고려부터 조선에 이르는 시대의 문인, 화가 아홉 명, 중국에서는 서진부터 청나라에 이르는 시대의 문인, 화가 열네 명의 삶과 예술을 소개한다. 문인들과 화가들은 뜨거워진 창작의 욕구를 술로 달래기도 하고 감흥이 고조된 채로 자신의 천재적인 끼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도도한 취흥으로 일필휘지 한 수 시를 남겼다. 스스로 견뎌내기 힘든 무언가가 분출할 때 예술가들은 더 괴팍해지지만, 그럴수록 작품이 더욱 빛을 발했던 것.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창작의 고통을 맛본 저자가 자신의 경험과 수많은 문헌에 남겨진 증언들을 통해 술이 예술가들에게 갖는 의미를 말해준다.

## ▶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증성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는 부산문화회관이 개관일인 9월 3일 개관 20주년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번 기념행사는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공연으로 열리는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첫 공연 관람 후 영빈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을 비롯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펼친 기업과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인사, 부산시립예술단 최장기 정기회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부산을 상징하는 문화예술의 전당인 부산문화회관은 지난 1983년 10월 공사를 시작해 1988년 9월 3일 대극장을 1차로 준공, 개관한 후 1993년 4월 15일 10년간의 대역사 끝에 전관 완공했다.

## ▶ 부산문화회관, (주)포커스신문사 업무협약 체결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오는 9월 1일 일간지 포커스신문 광고를 통한 공연홍보를 위해 (주)포커스신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주)포커스신문사는 2009년 8월까지 1년간 일간지인 포커스신문 광고면과 기사면을 통해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과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을 무료로 홍보하고 부산 지역 문화활성화를 위해 부산문화회관과 함께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포커스신문은 지하철 및 주요 간선도로변에 비치되는 무료 일간지로, 1일 10만부가 발행된다.

##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분장실 새롭게 단장



개관 20주년을 맞아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문화회관은 예술인들에게 최적의 공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8월 기존의 낡은 분장실을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에 단장된 분장실은 출연자 대기실 2개소와 남·녀 분장실, 개인분장실 5개소로, 바닥은 강화마루, 벽은 포인트벽지를 사용해 쾌적한 환경을 연출했다.

한편, 이번 공사 기간동안 시민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소극장 객석 교체 공사가 함께 진행되었고 부산문화회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극장 상부 무대 외벽 2개소에 옥외 사인간판도 설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덜었다.

# 달콤한 포도향이 가득한 충효의 고장 영천 여름여행



8월 8일 오전 7:20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은 여느 때 보다 이른 출발 때문에 일찌감치 모여든 회원들로 북적였다.

8월 여행지는 달콤한 포도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포도의 고장 영천.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족들과 시립극단 단원 제정경, 윤유경과 함께 떠난 8월 여행은 출발 전부터 기대와 설렘으로 즐거움이 넘쳐났다.

8월은 매년 영천시에서 영천포도를 알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포도수확 체험’ 행사에 참여하는 행운을 얻어 영천 포도밭으로 떠났다. 영천은 지리적인 여건이 좋아 전국적으로 과일 생산량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다.

“언제 포도밭에 도착해요?”

“포도는 얼마나 딸 수 있어요?”

부산문화회관을 출발한지 1시간 40분만에 충효의 고장 영천에 도착했다. 테마여행에서 처음 진행하는 포도 따기 체험 행사여서 그런지 회원들의 기대치가 높아 열의 또한 대단했다.

“와! 포도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포도따기 체험은 영천시청 과수유통과 직원들과 함께 직접

포도를 수확하고 영천의 문화 유적을 둘러보며 포도와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한 가족들이 2Kg 포도 1박스에 정성껏 포도를 따면 정확하게 정량을 따 가족과 당도가 높은 맛있는 포도를 따 우수 가족들에게는 영천 특산물이 선물로 주어졌다. 시장이나 마트에서만 맛보던 포도를 직접 따보고 시음하고 덤으로 포도 1박스를 따가는 체험에 모두들 신이났다.

오전 포도 수확체험행사에 이어 찾은 곳은 포은 정몽주를 배향한 임고서원. 영천에서 태어난 포은 정몽주는 영천시민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조선 명조 8년에 건립된 임고서원에는 임고서원 소장전적 및 포은 정몽주 영정이 보물 제 1109호, 1110호로 지정되어 있고 서원 앞에는 수령 5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우람하게 서있다. 문화유산 해설사인 영천시 문화원 사무국장 전민욱 씨의 설명을 들으며 영천 사람들의 정신적인 스승인 정몽주선생과 영천의 자랑 보현산 천문대 등 ‘영천’에 대해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간단한 중식 후에는 모두들 기다리던 포도기네스 대회. 포도



주 담그기에 이어 포도 빨리 먹기대회, 포도알 멀리 뺏기 대회, 영천포도 사행시 짓기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이어졌다. 유치부와 초등부, 중등부로 진행된 '포도알 멀리 뺏기'는 영천시가 추천하는 올림픽 종목~. 포도멀리 뺏기 최고 기록은 8미터. 승부욕이 강한 꼬마 회원들의 열의가 대단해 10cm에서 부터 8m까지 이색 기록들이 쏟아졌다.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영천포도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포도 먹기 대회'에 이어 회원들은 임고에 새롭게 단장한 강변 휴양지에서 잠깐의 물놀이도 즐겼다.

포도가 익어가는 과일의 고장 영천. 영천 포도를 알리기 위해 땀 흘리는 영천 사람들의 열정과 넉넉한 인심에 반한 정기회원 가족들의 특별한 여름 나들이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다.

## 사행시 대회 우수작들

- 영 천에 와서 포도를 먹으니  
 천 하장사 같은 힘이 생겨요  
 포 도를 먹으면 얼굴도 여백전데요  
 도 대께 포도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 배지웅 · 낙동초등 2년

- 영 천에 오니 온 세상이 포도밭이네...  
 천 상의 모든 벌들이 이곳에서 태어났으니...  
 포 은 정몽주 선생의 충.효 사상이 이어온 이곳  
 도 리를 가슴속 깊은 곳에 품고 사는 마을, 이곳이 영천이네...

- 박찬현 회원 가족

※ 10월은 **울산**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 엽서를 부산 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9월 15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가입자

김요안(동구 범일동)  
 김초희(수영구 망미1동)  
 김태순(서구 암남동)  
 박선행(사상구 주례2동)  
 박양명(서구 부민동1가)  
 김복래(연제구 거제3동)  
 이화재(해운대구 우1동)  
 이인숙(부산진구 범천1동)  
 장준호(부산진구 초읍동)  
 최은실(동래구 사직동)

### 엽서 당첨자

김백운(수영구 광안3동)  
 강난주(연제구 거제3동)  
 성용호(기장군 기장읍)  
 유이화(사하구 괴정1동)  
 이경미(남구 대연3동)  
 이민지(남구 용당동)  
 이병순(북구 만덕3동)  
 이오순(서구 토성1가)  
 이정애(연제구 연산1동)  
 전영희(사하구 괴정3동)

## 100자 토크

### 연극 '룸넘버 13'

웃다가 배아픈 '룸넘버 13'. 나에게 연극이란 무엇이고, 연극이 이렇게 재미있는 것인지를 알려준 작품. 예전에 너무나도 재밌게 보았고 웃기만 했었던 공연이었는데 또 다시 부산에서 한다는 소식에 반가웠다. 예전 그때 그 순간의 행복함이 느껴지면서 내가 즐겼던 것처럼 후회없는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다들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손성남(서구 서대신동2가)

### 티파니 보석전

사치와 허영으로 대변되는 보석들의 나열밖에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앞세우고 전시회를 찾았다. 그러나 17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티파니의 노하우와 시대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들의 창조성의 결합은 보석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보석을 더욱 보석답게 만드는 그들의 땀과 열정에 찬사를 보내며...

오정국(부산진구 전포2동)

### 토요상설무대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연주회'

고아한 전통미와 화려한 퓨전 음악의 세계에 흠뻑 빠져 시종일관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마침 여름방학 과제를 목적으로 객관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가야금 선율에 그날은 우리모두가 하나가 되어 추억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었다.

권태임(사상구 주례2동)

### 뮤지컬 '싱글즈'

몇년전 영화로도 개봉되었던 작품이라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었다. 그냥 내용을 알기에, 이 장면은 어떻게 연출을 하고, 무대에서 배우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영화랑 너무 똑같은 연기를 하지는 않을까...하고 궁금했다. 생각보다 기대이상으로 즐거운 공연이었고 내용은 같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배우들의 모습에 영화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석상훈(부산진구 부암1동)

###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개막작 '홍길동'

41년을 거슬러 올라 1967년에 태어난 '홍길동'을 만난 것은 큰 행운. 재미있는 것을 보고 웃고 즐길 줄 아는 아이들의 순수함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것이 놀라웠다. 나에게서는 과거로 떠난 추억여행, 디지털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는 시대를 초월한 즐거움을 안겨 주었다.

최영화(사하구 장림 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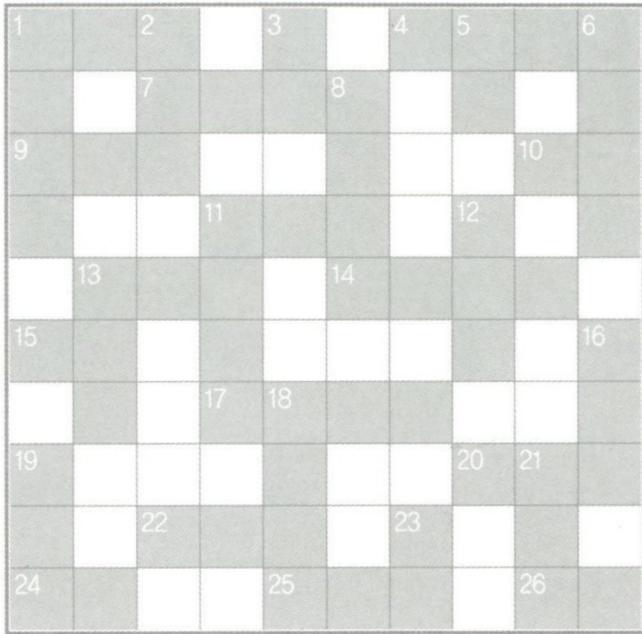
**방법** [bsculture@naver.com](mailto: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놀부집 향아리갈비 식사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감** 수시 모집(원고를 보내실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가로

- 1869년 11월 수에즈운하 개통을 기념해 제작된 베르디 오페라.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부산에서 처음 제작되어 9월 3일부터 5일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 하늘이 높고 말이 살핀다는 뜻으로, 하늘이 맑고 모든 것이 풍성함을 이르는 사자성어이다.
- 같은 공간과 시간에서 자신과 똑같은 대상(환영)을 보는 현상. 독일어로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말로, 우리말로 분신, 생령, 분신복제 등 여러 용어로 쓰인다.
-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3개 대륙으로 둘러싸인 대서양의 부속해로, 고대부터 중세 말까지 유럽 문명의 중심무대가 되었다.

- 태양력에서 윤년에 드는 날. 2월 29일.
- 올해 개봉영화 흥행 1위로 올라선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김지운 감독이 만든 2000년 개봉작으로, 무기력하게 일상을 살던 은행원이 프로레슬링을 통해 변화해가는 모습을 그린 송강호 주연의 영화이다.
- 동그란 얼굴에 다소곳이 솟은 콧날과 좁고 긴 코, 쌍꺼풀이 없이 긴 눈 등 우리 나라의 전통적 미인상을 보여주는 조선후기 풍속화가 신윤복의 인물화.
- 인색한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
- 노래와 개그를 접목시킨 '라이브 개그 콘서트'라는 공연 방식을 최초로 도입시킨 개그맨 정찬우, 김태균으로 구성된 개그듀오.
- 대기를 가지고 있는 행성 표면에서 나오는 복사에너지가 대기를 빠져나가기 전에 흡수되어, 그 에너지가 대기에 남아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 녹두장군으로 불린 조선 후기 동학 농민 운동의 지도자. 부패한 관리를 처단하고 시정개혁을 도모했으며,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도 했다.
- 16~18세기에 널리 쓰인 건반 악기. 피아노에서 해머로 현을 치는 것과는 달리 픽(pick)으로 현을 튕겨 섬세하고 화려한 음색을 낸다.
-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악기. 목은 황죽이나 쌍골죽으로 만들며 구멍은 13개이다. 음역이 넓어서 다른 악기의 음정을 잡아주는 구실을 한다.
- 프랑스 근대 작곡가. 인상파 음악의 시조로 대표곡으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관현악곡 바다, 전주곡 집 등이 있다.
- 민속음악에 속하는 기악독주곡 형태의 하나.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배열된 3~6개 장단 구성의 악장으로 구분되며 반드시 장구반주가 따른다. 허튼가락.

### 세로

- 안단테와 라르고 사이의 느린 빠르기말로, '천천히', '매우 느리게'를 뜻한다.
- 전라남도과 대한해협 사이에 있는, 섬이 많은 바다. 거제도, 남해도, 진도, 한산도 등이 있다.
- 프랑스 후기인상파 화가. 남태평양의 타히티에 정착, 원주민의 건강한 인간성과 열대의 밝고 강렬한 색채가 그의 예술을 완성시켰다.
- 12세기 중엽에 유럽에서 생긴 건축양식. 성당건축의 전형적인 것으로, 아치와 하늘높이 치솟은 뾰족한 탑 등의 수직효과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전.
-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대표작.
- 아르헨티나 탱고에 사용하는 손풍금의 하나. 음색, 구조가 아코디언과 비슷하나, 아코디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스타카토 주법이 가능하다.
-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던 공공의 광장. 아크로폴리스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다면 이곳은 시민의 경제생활과 예술활동이 이루어졌던 장소이다.
- 삼이나 노 따위로 짚신처럼 삼은 신.
- 지난 7월 31일 타계한 한국문단의 거목. 대표작으로 당신들의 천국, 축제, 서편제, 이어도 등이 있다.
- 내륙 아시아를 횡단하는 고대 동서통상로. 동방에서 서방으로 간 대표적 상품이 중국산의 비단이었던 데서 비단길이라는 이름이 부쳐졌다.
- 국보 285호로 지정된 선사시대 암각화가 새겨진 곳.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월 테마여행지이기도 하다.
- 여름의 금강산을 이르는 말.
- 아내를 달리 이르는 말. 혹은 새색시.

### 지난호 정답

지	젤	여	자	는	다	그	래
킬	설	피		대		슈	
앤	국	싱	가	포	르	베	
하	프		클			르	
이		오	즈	알	포	인	트
드	보	르	작		토	어	
	첼		교	향	곡		공
아	리	아		학		별	주
바		로		강	아	지	통
타	지	마	할	세		별	순
							검

## 퍼즐 당첨자 명단

### ■ 큰집 식사권

이중희(수영구 광안2동)  
남효숙(연제구 연산동)  
박지영(남구 감만동)  
최미경(금정구 장전동)  
김민재(수영구 망미동)

### ■ 놀부집 향아리갈비

이규(남구 용호1동)  
박효정(남구 용당동)  
김주성(남구 용당동)  
이영미(남구 대연동)  
정승겸(금정구 장전동)

### ■ 가마골 소극장 초대권

박한영(남구 대연동)  
박상희(수영구 남천2동)  
강호성(북구 화명동)  
장연주(사하구 감천2동)  
이연중(영도구 남항동)

### ■ 동보서적 도서상품권

안정운(남구 대연3동)  
조원주(남구 용당동)  
차경희(남구 용호2동)  
황은서(수영구 수영동)  
이혜인(연제구 연산2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놀부집 향아리갈비 대연시티원점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8년 9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문의/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20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혜택

# 해외여행비 3%할인 받자!!



\* 특별할인 혜택은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 하실 때 적용됩니다.  
\* 전국 대표전화 1544-175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www.hihana.co.kr](http://www.hihana.co.kr)

NAVER

하이하나

## Best of Best 상품

상반기 인기상품  
베스트 3 추천여행



동남아 대표적인 해변 휴양지 푸켓  
푸켓/피피섬 5일 보트라군 리조트  
ABP701 659,000원~



에메랄드 빛 바다와 남국의 아자수  
세부 코스타벨라 리조트 4일/5일  
APP754 679,000원~



남태평양 유일의 한국계 최고의 특급리조트  
사이판 월드리조트+디너쇼 5일/6일  
PSP703 1,399,000원~

## 중국여행



[무릉도원 일주]  
장가계/원가계 4일/5일  
CCP777 649,000원~



[대륙 + 홍콩야경]  
광저우/심천/홍콩 5일  
CSP743 929,000원~



[서울출발]  
하이난 호라이즌 리조트 5일/6일  
CSP832 999,000원~

## 문화예술 유럽여행

전세계 예술과 문화를  
만나는 예술여행



[고흐의 그림 이야기]  
불멸의 화가 반고흐展 9일  
EWP362 5,390,000원~



[모딜리아니의 그림이야기]  
모딜리아니와 잔느展 9일  
EWP363 5,090,000원~



[괴테의 문학이야기]  
독일 괴테가도 7일  
EWP364 3,790,000원~

## 베스트 트레킹여행

여행의 새로운 시작인  
트레킹 여행상품



[일본의 지붕] 북알프스/야리카다케/  
호다카다케 트레킹 4일/5일  
JHK513 1,290,000원~



꼭 가봐야 할 우리땅! 백두산!!  
장춘/백두산 북파 트레킹 4일  
CNK812 1,050,000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황산 서해대협곡 트레킹 4일  
CCK812 799,000원~

#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9월 6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 ■ 프로그램

- 춘앵전(출연/김미란)
- 왕의남자(출연/황대현, 박광호)
- 훈령무(출연/류권홍)
- 쾌지나 칭칭나네(출연/이상민, 박은혜, 김정숙)
- 도살풀이춤(출연/김주령 · 수석 단원)
- 한오백년(춤/이정인 · 부수석 단원)
- 허튼북춤(춤/박상용, 강모세, 허태성, 최의옥, 김윤호 · 태평소/이창규 · 상쇠/장래훈 · 장고/성현우 · 북/이성원 · 징/이정식)
- 안무 및 구성/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 해설/박소윤



## 9월 20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교향악단 목관5중주 연주회

### ■ 프로그램

- 모차르트/서곡 '피가로의 결혼' 작품492
-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라장조 '잘츠부르크 교향곡 제1번' 작품136
- 페렝 파르카스/17세기의 옛 헝가리 무곡 중 제5악장
- 프레데릭 데브리제/벤베누타 모음곡 중 제4악장  
(Bass Clarinet Solo/이원기)
- 말콤 아놀드/세 오두막집 작품4
- 조르주 비제/'카르멘 환상곡' 중 '하바네라' '카르멘'  
· 출연/이민정(혼), 유미영(플루트), 김미영(오보에), 이원기(클라리넷), 장보영(바순)

## 9월 27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단 공연

1984년 '부산아미농악' 단원들이 중심이 되어 창단된 이래 전통 문화 계승, 발전에 힘써온 부산풍물패가 2000년 젊은 전통예술인(무용, 국악)들로 재구성하여 발족한 부산예술단의 특별무대.

### ■ 프로그램

- 비나리(문굿), 판굿(출연/김상헌, 이창규, 최오성, 정성훈, 강희정, 윤승환)
- 향발무(출연/조현영, 원애리, 홍주희, 이정희, 이해정)
- 사장사북(사물놀이)(출연/김상헌, 이창규, 최오성, 정성훈, 강희정, 윤승환, 김태형, 조한민 외)
- 장고춤(출연/조현영, 원애리, 홍주희, 이정희, 하정화)
- 무고(출연/김상헌, 이창규, 최오성, 정성훈, 강희정, 윤승환, 조현영, 원애리, 홍주희, 이정희, 이해정, 하정화, 김태형, 조한민 외)

· 관람료 :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온가족 신나는  
**바다속 여행!**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Busan Aquarium**

전시 생물 수 400여종 35,000여 개체, 세계 각지의 열대 담수어와 해수어 등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아쿠아리움에서 신비로운 해저세계를 경험하세요

부산아쿠아리움 [www.busanaquarium.com](http://www.busanaquarium.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행사 및 예약 문의 : 051-740-1700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 놓치지 마세요.



### ▶ 10월 10일(금) 암각화 전시관으로 떠나는 선사시대 여행

선사인들의 고래잡이 등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유일 암각화 전시관인 울산 암각화전시관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각석 등 국보급 선사문화재를 둘러보고 가을로 물든 시골농촌체험을 즐겨본다.

- ▷ 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울산 반구대 암각화 전시관 도착, 전시관람
- ▷ 13:00 반구대 팜스테이마을 도착, 가을 농촌 체험
- ▷ 17:00 부산으로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 11월 14일(금) 사과 향 가득한 영천 별빛 마을 가을 여행

충효의 고장, 과일 향 가득한 별의 도시 영천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아름다운 별을 헤는 영천 정각리 생태마을에서 감자 삼굿구이, 사과 따기 체험 등으로 몸과 마음이 풍요로운 가을을 즐긴다.

- ▷ 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영천 전통염색교육관 염색 체험장 도착, 염색체험
- ▷ 11:30 중식 후 별빛 마을로 이동
- ▷ 13:00 시민 천문관 관람, 감자 삼굿구이, 사과 따기 체험
- ▷ 17:00 부산으로 출발

■테마여행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9월 15일까지 보내주세요.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첨,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ulture.busan.kr)에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 628-2592

순수 창작 소극장 뮤지컬  
**여자는 다 그래**

10% 할인



▶ 날짜 : 2008. 8. 22(금)~9. 21(일)

▶ 시간 : 평 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9/13, 14일 공연없음,

9/15 오후 3:00, 6:00)

· 각색/이재경 · 연출/남미정

▶ 입장권 : 균일 25,000원

▶ 장소 : 가마골 소극장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 2008. 7. 1(화)~9. 30(화)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신비로운 해저세계-

**부산아쿠아리움**

10% 할인

· 날짜 : 2007년 12월 1일 ~ 2008년 11월 30일

· 시간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8시

(마지막 입장 오후 7시)

주말·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10시

(마지막 입장 오후 9시)

· 타 할인혜택과 중복할인 불가

· 쿠폰제시시 1매 4인까지 10% 할인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

“당신의 피부속을 진단해 드립니다”

**맛사지 무료체험권**

**DR▲QU**

\* MBC / SBS / KBS 방송사에서 방영된 놀라운 피부혁명\*

여드름 / 기미 / 아토피 / 잔주름 / 검버섯

**닥터▲큐 남천점 Tel. 622-6901**

지하철 남천역 4번출구 동해빌딩 4층 \* 방문시간 사전 예약제 실시\*

공연의 준비에서 감동까지  
그 시작은 박스애드컴과 함께...

☎ 633-2655

문화 · 예술 공연의 홍보 도우미  
**지하철 포스터 광고**



2006  
최우수  
공기업 선정

2007  
우수  
공기업 선정

2007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수상

# 미래를 아는 부산도시공사... 우리의 미래는 바로 고객 여러분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객, 인재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는 **BMC**가 되겠습니다.



**BMC**  
부산도시공사

**주요추진사업** 부산신항배후부지 조성,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화전산업단지 조성, 미음산업단지 조성, 장안산업단지 조성, 정관택지조성, 추모공원조성, 테크노파크 건립, 주거환경개선(4개지구)

**BMC** 부산도시공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 (614-707) |  
| Tel. 051)808-2662 | Fax. 051)810-1400 | <http://www.bmc.busan.kr> |

20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꿈과 어린양자

도너

앞으로 주는 사람

맨 처음 고백

나의 작은 꿈

은하철도 999

이등병의 편지

웨딩케익

사랑의 열매

사랑한 후에

그대 너를 사랑하기 전에

님을 위한 행진곡

7080 세대를 위한 달콤한 추억의 주크박스 뮤지컬

# 달고나

2008.10.18(토)-19(일) 오후 3시 /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난타 제작진이 만든 또다른 야심작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소문난 뮤지컬 달고나

**할인정보**

- 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다자녀가정 20% 할인
- 20명이상 단체구입 20% 할인
- 국가유공자·장애인 50% 할인

-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 주관: 부산문화회관 (주)PMC 네트워크
- 공연문의: 부산문화회관 (051) 607-6057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051) 607-6070
- 공연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http://www.bsculture.busan.kr>  
티켓링크 <http://www.ticketlink.co.kr> 1588-7890  
부산은행 전지점